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방안 연구

이탈리아, 그리스 출장보고서



2010. 9

서수정 연구위원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목 차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1 출장개요	1
1.2 출장 배경 및 목적	1
1.3 세부일정	3
2. 이탈리아, 그리스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례조사	4
2.1 이탈리아 친퀘테레	4
2.2 이탈리아 카프리 섬	11
2.3 이탈리아 아말피 · 포지타노	14
2.4 그리스 산토리니 섬	19
3. 주요 방문기관 면담내용	26
3.1 친퀘테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26
3.2 경관 및 도시계획가 면담	30
3.3 바리대학 해안경관계획 전문가 면담	33
4. 이탈리아 경관관리제도 조사	37
4.1 아말피	37
4.2 친퀘테레	40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1 출장개요

출장기간	: 2010년 8월 25일(수)~9월 2일(목)		
출 장 자	: 서수정 연구위원		
출장지역	: 이탈리아 친퀘테레(Cinqueterre), 나폴리, 바리 해안마을, 그리스 산토리니 해안마을		
출장목적	1. 해안마을경관형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선도사례 답사 2. 해안마을 경관관리 및 경관형성 지원방안 조사를 위한 전문가 면담		
출장내용	: 관련기관 방문 - 이탈리아 친퀘테레 국립공원사무소 바리대학교		
	: 담당자 면담		
	·친퀘테레 국립공원 사무소	Luca Natale(대표)	Francesco Marchese(도시계획담당)
	· MAPSTUDIO (MEDITERRANEAN ARCHITECTURE AND PLANNING)	PhD Marco Patruno(계획가)	
	·바리대학교 건축학과	Prof. Maria Valeria Mininni	
	: 사업지구 답사- 해안마을 사례		
	· 이탈리아 친퀘테레 5개마을 (Riomaggiore, Manarolo, Corniglia, Vernazza, Monterosso)		
	·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 해안마을 (Capri, Positano, Amalfi)		
	· 그리스 산토리니 해안마을 (Thira, Oia)		

1.2 출장 배경 및 목적

- 최근 초광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측면에서 해안권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광역단위의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블루벨트 등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의 기반인 해안권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추진
- 해안권 개발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훼손 사례 증가
 - 관광명소로 인식된 일부 해안지역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소규모 리조트개발, 펜션, 윗집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주변경관 훼손
 -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해안권 개발중단으로 경관 훼손
- 해안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으나 이에 대

- 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미흡
 - 해안마을은 해안지역만의 경제활동과 독특한 생활풍습, 인문학적 특성 등이 누적되어 살아있는 역사·문화적 장소로서 국제적 관광자원화의 잠재력이 있음
 - 독특한 해안경관을 보존, 형성하기 위한 해안마을 경관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거주자의 낮은 경제력,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경관형성 여건 미흡
 -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안마을을 대상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일회적 사업에 국한
- 반면 역사문화적 자원과 우수한 해안경관으로 유명한 유럽의 해안권 국가들은 관광지로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마을단위의 경관형성방안 마련과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
 - 인위적인 경관형성보다는 해양자원, 자연자원, 군집을 이루고 있는 마을경관 자원을 자연적인 형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경관가치 향상에 기여
- 특히 국제적으로 해안마을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낙후 해안지역의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를 유도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해안마을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도 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립관광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경관관리 수행
 - 주민들의 합의형성을 통해 해안마을 고유의 경관형성을 위한 건축가이드라인을 준수
- 해안마을 경관형성에 대한 정책지원방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도적인 참조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해안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필요하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관관리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
 -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경관형성 사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단위의 체계적 경관형성방안 및 주민주도의 지속적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바람직한 해안마을 경관형성방안 마련과 정책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외의 선도사례를 방문하여 관련기관 담당자 인터뷰 및 자문 수행 필요
 - 경관형성과 보전을 통한 해안마을 관광 활성화 선도사례에 대한 현장방문 후 '해안마을 경관형성 방안연구'의 기본계획지침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주민주도의 해안마을 경관의 관광자원화 방법 및 제도적 지원방안 사례조사
 - 해안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경관지침)의 역할 및 개선효과 파악

1.3 세부일정

일 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비고
8월25일 (수)	13:30 인천	Inchon	~	밀라노 현지 18:20분 도착	항공
	18:20	~	Milan	밀라노 도착 후 숙박 (Cristallo Hotel Grade)	
8월26일 (목)	08:00 ~11:36	Milan	la spezia	la spezia 이동	기차 3.5h, 9:05 환승 3h
	오후			사례방문) 친퀘테레 5개 해안마을 중 3개마을 답사 - Monterosso, Vernazza, Corniglia	지역 기차
8월27일 (금)	10:00 ~12:00		Riomag giore	기관방문) 친퀘테레 국립공원(PARCO NAZIONALE DELLE CINQUE TERRE) 도시경관부문 담당자 자문회의 Riomaggiore마을 - Luca Natale	schedule confirmed
	오후			사례방문) 친퀘테레 5개 해안마을중 2개마을 답사 - Manarolo, Riomaggiore	지역 기차
8월28일 (토)	08:06 ~14:10	La spezia	Naples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이동	6h / 06:51(5h20m)
	오후			사례방문) 남부 해안마을 방문 - 소렌토, 포지타노, 아말피	
8월29일 (일)	09:06 ~17:00			사례방문) 카프리섬 해안마을 방문	지역 기차
	18:55 ~22:44	Naples	Bari	나폴리→ 바리 이동	지역 기차 (환승)
8월30일 (월)	09:00 ~18:00			면담) MAPSTUDIO MARCO PATRUNO 인터뷰 (MEDITERRANEAN ARCHITECTURE AND PLANNING) 기관방문) University of Bari, Maria Valeria Mininni 교수와 해안경관관리 및 계획에 관한 자문회의 장소: POLITECNICO DI BARI 주소: VIA AMENDOLA RETTORATO (STANZA DI DIRETTORE)	마르코 파르투노 동행 Bari University
8월31일 (화)	오전			사례방문) 바리 해안경관 답사	
	12:15 ~13:25	바리	로마	로마 이동	Palese 공항, Alitalia 1604
	16:30 ~19:40	로마	산토리니	산토리니 마을 이동 후 숙박 (SYRIGOS SELINI)	3h10m
9월1일 (수)	오전			사례방문) 산토리니 해안마을 Thir, Oia 답사	지역항공
	15:55 ~20:05	산토리니	로마	아테네 경유 에게안 항공	지역항공
	22:40~	로마	~	로마→ 인천 출발	
9월2일 (목)	~ 14:40	~	인천	인천공항 도착	

2. 이탈리아, 그리스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례조사

2.1 이탈리아 친퀘테레

(1) 현황 및 경관형성 추진배경

- 친퀘테레는 제노바에서 라 스페치아(La Spezia) 방면에 있는 이탈리아의 해안마을로서 리오마조레(Riomaggiore), 마나롤라(Manarola), 코니글리아(Corniglia), 베르나차(Vernazza), 몬테로소알마레(Monterosso al Mare)의 다섯 마을로 이루어짐
- 해안마을인 친퀘테레의 주 산업은 수산업과 농업이 병행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수산업보다는 올리브 오일과 포도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어 와인 생산과 포카치아(Focaccia)라는 지역 특산 빵이 명물로 알려짐
- 이 마을은 중세이후 요새도시로 형성된 마을로 20세기부터는 이탈리아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발전
- 친퀘테레해안과 5개 마을, 주변의 언덕은 친퀘테레(Cinque Terre)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문화경관유산)으로 지정
- 수 세기동안 확장되어 온 농업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독특한 계단식 농경경관을 형성하여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보존·유지시켜 왔으나, 이후 관광업 성장으로 인해 전통 농경활동이 위축되면서 과거와 같은 생활문화경관의 자발적인 보존이 어려워짐
- 이에 1997년 각 마을의 지방의회들이 합의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공원 기구를 조성하였고, 경관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각종규제, 계획 등과 보존 정책들이 도입됨

(2) 경관자원

□ 자연경관

- 북측 해안의 대표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이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깎아지른 절벽과 바다, 농경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마을임
- 이탈리아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경사지형의 포도밭과 올리브밭은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친퀘테레 국립공원관리소는 포도경작지를 유지,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5개의 마을은 모두 해안에 면하고 있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무인도의 절경이 또 다른 해안경관을 형성
- 모래사장이 아니라 흑자갈로 조성된 바닷가 경관과 자연경관의 하나로 어우러져 친퀘테레만의 해안경관 형성



[그림 4] 친퀘테레 자연경관

□ 생활문화경관

- 경사지에 조성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일하는 사람들의 풍경은 친퀘테레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경관요소로 작용
- 친퀘테레를 순회하는 요트와 페리정박지가 해안경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바다에 떠 있는 수척의 요트는 해안의 절벽과 함께 이색적인 경관을 형성
- 마을을 관통하는 철길과 기차, 역사적인 흔적이 살아 있는 기차역사는 마을을 연계하는 중요한 교통네트워크이자 생활경관 요소의 하나이며, 기차역에서 내리면 바로 해안마을로 접근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정동진과 같은 분위기 형성
- 또한 산악지형의 특성에 순응하여 구불구불한 능선을 따라 조성된 2차선의 좁은 도로를 따라 내려다 보이는 해안마을은 이 지역의 명소이며, 이 길을 순회하는 초록색의 미니버스도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경관요소로 인식
- 해안 요새지역이었던 친퀘테레의 역사적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으며, 13세기~15세기에 건립된 교회들이 해안과 중요한 경관지점에 위치, 교회 광장을 중심으로 해안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음



[그림 5] 친퀘테레 생활문화경관

□ 마을경관

- 친퀘테레의 5개 마을은 마을마다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밀집된 건축물이 성벽을 이루고 있음
- 마을은 주로 협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자연적인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이 가로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세에서 19세기에 걸쳐 형성된 마을 공간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경관을 형성

- 마을마다 해안을 향하여 군집된 건축물이 만들어 낸 가로벽은 조망대상으로서 마을경관을 형성하며 2m정도의 골목길을 마주하고 밀집된 건축물의 가로벽에 부착된 출입문의 장식물, 창호, 코니스 등은 보행레벨에서 시각적 즐거움을 부여

◦ Monterosso

- 협곡을 따라 형성된 중세풍의 역사적인 마을과 새로운 관광마을인 Fegina로 구성된 Monterosso는 신구마을이 독특한 건축물과 도시적 조화를 형성하고 있음
- 회벽마감에 미색, 분홍색, 하늘색 등 파스텔 계열로 마감한 건축물이 성벽과 조화를 이루어 회화적 경관형성



[그림 6] 친퀘테레 Monterosso 마을경관

◦ Vernazza

- 1080년에 건설된 마을로 중세시대부터 조성된 건축물이 조밀하게 밀집, 급경사지에 건축된 마을로써 계단과 건축물이 통일된 건축적 경관을 형성
- 또한 성벽과 밀집된 건축물 경관이 일체화된 마을풍경으로 인식



[그림 7] 친퀘테레 Vernazza 마을경관

◦ Manarola

- 12세기에 형성된 마을로 친퀘테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짐
- 계단식 포도밭과 올리브 경작지를 배경으로 절벽위에 전형적인 Genoese 타입의 타워형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자연적인 경관과 인공적인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마을자체가 기념비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철도역이 마을의 시작점으로 중심가로를 따라 바다와 접하고 있음
- 가로를 따라 교회와 벨타워 등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고, 협곡을 따라 배치된 건축물은 구불구불한 가로를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관을 형성

- 마을 곳곳에는 19세기 이전에 형성된 우물, 소규모 광장 등이 여전히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골목길은 일상생활공간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의 장으로서 인문학적 경관을 형성
- 마을과 바다가 조망되는 지점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공간을 조성
- 포도밭에는 지역에 종사하는 예술가가 야간조명을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자연 경관과 어루어지는 야간경관 조성



[그림 8] 친퀘테레 Manarola 마을경관

◦ Corniglia

- 친퀘테레 5개의 마을 중 철도역사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고 해안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산악구릉도시에 건립된 마을
- 해안가 높은 절벽위에 5~6층의 가로벽을 형성한 Corniglia는 경사도 30%수준의 가파른 곳에 위치한 성벽도시로 마을은 인공적 경관물로서 손색이 없으며, 마을에서 바라보는 해안경관 또한 우수함



[그림 9] 친퀘테레 Corniglia 절벽위 도시

◦ Riomaggiore

- 해안선을 따라 13세기~14세기에 걸쳐 조성된 전형적인 이탈리아 북부 해안마을
- 바다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무역이 발달하였고 항구에서 바라보는 마을경관이 우수하며, 중세부터 형성된 도시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역사적인 경관요소로 작용



[그림 10] 친퀘테레 Riomaggiore 마을경관

(3) 경관형성 제도 및 계획

- 최초에는 1939년에 만들어진 경관규제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하였고, 이 후 주법 및 기존 공원계획 및 자연환경시스템계획에 따라 관리되었으며, 친퀘테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계획에 의해 관리됨

■ 친퀘테레 국립공원 계획(Piano del Parco)

- 목적 : 계단식 농경 경관 보존
- 만들어진 경관(built landscape)의 보존
 - 진화하는 문화경관(evolutionary cultural landscape)의 뛰어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계단식 농경 경관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관리도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
-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계획하기
 -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전통 농업, 특히 포도재배를 중요 시하여 결과적으로 복합기능 농업 도입, 농업 기술의 발전, 지역 관광 산업의 서비스와 연결된 새로운 잠재력 발굴
 - 건축물을 복원하고자 할 때 지역 건축물의 부동산 부가가치가 환경적으로 환원되도록 유도
 - 예로부터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오던 지역의 경관관리를 제도화
- 자연의 역학관계 보호
 - 국립공원 지역의 계단식 농경지역의 보존 및 재 자연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전략
- 지역생태계(계단식 농경 경관지역)의 유지와 복원
 - 포도주용 포도 농사의 유지와 복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복원 및 수리의 과정을 통해 주변의 건식벽이나 농경 경관이 향상 되도록 하고, 공원기구의 경우는 기금 운영을 통하여 계단식 농경경관 복원 뿐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기간시설 확충 작업 수행
- 위험 예방과 안전 대책
 - 거주지, 기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건식벽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며, 이를 계단식 농경 경관 보존계획과 연계
- 농업과 관광업의 복합적 경제 발전
 - 농경 활동과 관광, 식품 관련 산업을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
 - 해안지역의 관광객 집중을 줄이고 산위로 분산시키고자 함
- 경관보존과 보호에 임하는 지역공동체와 지역민의 중추적 역할 담당
 - 현재의 환경과 경관구조 연구를 통해 오늘날 적용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인문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을 제안
 - 외부와의 관계에 열려있는 공동체 추구
- 사회적 목표
- 관련기관들의 협력 계획
 - 지역의 각종 사업진행에 있어 여러 행정기관과의 정책 방향 조율
 - 갈수록 늘어나는 공원관련 계획과 규제 속에서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복잡한 각종 법규의 단순화
 - 이를 위해 공원의 보호지역에 관한 법체계는 본 계획이 모든 기존의 도시 및 경관 계획을 대체 하도록 함

-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계획
 - 지역 주민에게 본 계획이 또 하나의 제약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사회변화와 경제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역민을 지역 보존에 참여시키고,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내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
- 지역에 관한 지식을 위한 계획
 - 지역 지식의 형성은 계획수립과정의 중요한 단계
 - 적절하게 형성되고 소통된 지역의 지식은 계획의 목적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단식 농경경관 보존을 통한 지역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강화하는데 중요
 - 기존 연구의 분류 및 재정리, 부족한 지식의 보완, 보급이 쉬운 형태로 재정비, 지역지식의 GIS화를 통한 활용

(4) 경관특성

-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5시간 루트의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점과 면의 네트워크에 의한 마을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행레벨에서 해안경관과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근경과 바다를 향한 원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음
- 쇠퇴하던 포도밭과 올리브 경작지는 친퀘테레의 가장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친퀘테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관관리 주요 대상으로 인식, 전통적인 농경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계단식 포도경작지 개간방식과 모노레일 설치, 포도경작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등 지속적인 관리와 경관형성을 통해 마을 전체를 관광자원화
- 해안마을의 역사적인 전통과 건축물의 문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재료를 분석, 실험하여 건축물의 색채를 지정, 전통적인 벽돌과 돌쌓기 마감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축 또는 증개축시 이를 지키도록 함. 색채, 건축가이드라인은 의무기준은 아니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를 지키고 있음
- 친퀘테레는 해안마을과 조망점을 연결하여 마을단위 경관형성과 보존 뿐 아니라 몇 개의 마을을 경관관리단위로 결합하여 집단적인 관리수행
- 경관관리를 통한 마을의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립관광사무소가 지속적으로 경관자원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경관관리와 보존, 형성을 수행하고 있음
- 친퀘테레는 경관형성을 위한 계획적 관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인문학적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토지상황과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그림 11] 친퀘테레 경관특성

(5) 시사점

□ 생활문화 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

- 유네스코에 등록된 800여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으로 분류된 몇 안되는 지역으로, 오랜 시간동안 지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전통적 농경생활문화경관과 도시경관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친퀘테레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

□ 주민참여를 통한 전통생활문화경관 유지

- 상위기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Top-down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관리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물리적 경관(건축물, 자연환경)과 함께 전통생활문화경관(농경문화)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 오랜 전통생활문화에 의해 조성된 친퀘테레의 경관은 이탈리아에서 성장해 가는 관광산업으로 인해 전통적 삶의 방식이 사라져가면서 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주민들 스스로 전통생활문화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업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충돌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펼침

□ 지역공동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안마을의 경관유지

- 해안마을 경관관리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마을마다 노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200여명에 달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짐

□ 전통생활문화경관을 중요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

-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달과 함께 점차 쇠퇴하던 농경생활문화를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주요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친퀘테레 지역이 단순히 박물관과 같은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공원(lived park)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함

□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관광자원화 유도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전통적인 농경산업 쇠퇴 등으로 낙후한 해안마을의 자연경관자원과 인문학적 자원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성공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인문학적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마을자체를 또 다른 경관자원화 하는데 성공, 우수한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정체현상에서 벗어나 인구증가추세에 있음

2.2 이탈리아 카프리 섬

(1) 현황 및 경관형성 추진배경¹⁾

- 카프리 섬은 면적 10.36km², 인구 약 7천여명(2004)이 거주하는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 나폴리·아말피·포지타노 등 세계적인 관광휴양지 부근에 위치
- 연간 관광객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로서 인위적인 관광 자원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관광명소화 유도
- 카프리 섬의 관광요소는 섬이 보유한 고유한 자연관광자원으로, 자연경관 보전과 함께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섬 내에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명품 쇼핑거리 조성
- 1인당 GDP 3~5만 유로로 이탈리아 본토보다 현저히 높은 소득수준이며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실업률 0%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관광수입으로 섬유지
- 섬 내 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숙박 부대시설 건설의 경우 사업승인 후 건설비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함

(2) 경관자원

□ 자연경관

- 깎아지른 절벽을 형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해안과 달리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된 섬 경관 형성
- 친퀘테레와 마찬가지로 포도밭과 올리브 밭이 섬 경관을 형성하는 자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쪽은 600m를 넘는 고지대를 이루고 있음
- 섬 전체는 용암으로 뒤덮여 있으며 850종의 다양한 꽃과 식물, 나무가 자라며,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텃새들의 서식지로 자연 생태적 가치가 우수



[그림 12] 카프리섬 자연경관

1) 그리스·이탈리아의 섬관광,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 해외조사보고서, 2007, p17 카프리 시청 면담내용 참조

□ 생활문화경관

- 카프리섬의 관문인 항구에서는 대형 페리가 소렌토와 나폴리를 연결하고 있어 활기 있는 선착장 경관형성
- 선착장 주변에 해수욕장과 저층의 펜션이 밀집되어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룸
- 관광객을 위한 곤도라와 산악열차가 자연경관과 함께 카프리섬의 생활경관 형성
- 카프리마을의 중심지인 카프리 타운은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조지오 아르마니, 페라가모 등 명품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상업지 경관 형성



[그림 13] 카프리섬 생활문화경관

□ 마을경관

- 카프리섬에는 카프리와 아나카프리 2개의 마을이 형성. 카프리섬을 순회하는 미니버스가 2개의 마을과 해수욕장을 연결
- 2개의 마을은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는 울창한 산림과 지중해성 수목, 절벽과 해안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
- 친퀘테레와 달리 카프리섬의 주택은 규모가 큰 저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선착장으로부터 남사면에 이르는 경사지에 능선방향으로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테라스형 주택이 밀집된 인공경관 형성
- 강력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신축과 증개축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흰색 회벽마감이나 콘크리트에 흰색으로 마감함으로써 산토리니와 같은 마을경관 형성



[그림 14] 카프리섬 마을경관

- 골목길에는 집집마다 우체통, 대문, 주소 등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일정한 규칙을 갖고 부착. 일부 대저택은 담장이 있으며, 돌담과 콘크리트 마

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주택은 회백이나 흰색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통일된 경관을 형성

- 아나카프리에에는 성당과 공공청사, 학교 등이 있으며 주요 가로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주로 카프리산 세라믹 도기, 향료와 비누 등을 판매하는 상점과 레스토랑, 의료상품점 등이 있으며 이면도로는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골목경관 형성
- 골목길에 면한 건축물의 바닥부분은 골목길의 바닥포장과 유사한 돌쌓기로 마감하여 산토리니와 마찬가지로 가로와 건축물이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
-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쓰레기통, 우체통, 가로등, 홈통 등의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흰색의 건축물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통일된 가로경관 형성



[그림 15] 카프리 경관지침의 적용사례

(3) 경관형성 제도

□ 경관보전을 위한 건축규제

-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
- 카프리섬을 국가차원의 특수지역(피렌체, 베네치아 등)으로 지정하여 고도제한 및 색채 등 엄격한 건축규제 적용
 - 건축물 색채, 높이 등 규제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5년 이후 신축 및 증축을 불허하고 보수만 허용
 - 카프리시 건축법령에 위반하는 건축물은 허가 불가, 불법건축물 적발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및 형사고발 조치

□ 주민 정주환경 및 복지개선

- 카프리시는 섬 청소비로 연간 350만 유로 집행
- 섬의 고유성 보존하면서 육지로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해상교통수단(훼리, 정기여객선, 소규모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섬 주민들에게는 통행비 일부를 보조
- 본토 육지와외의 송수관 연결을 통해 카프리 섬 내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

(4) 경관특성

- 올리브 농장과 흰색의 테라스 주택이 조화를 이루어 절경을 이루고 있으나 주요

조망점이 되는 장소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리조트가 건설되어 있어 바다 조망이 쉽지 않음

- 또한 자연조건이 좋은 해변이나 경관이 우수한 곳은 소규모 리조트로 개발되어 사유공간화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폐쇄적인 환경 조성
- 카프리섬도 친퀘테레와 마찬가지로 마을 입구까지만 대중교통이 진입하고 차량 진출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보행활동을 통한 상업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
- 친퀘테레와 마찬가지로 자연경관과 건축물의 집합에 의한 인공적인 경관이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음

(5) 시사점

- 강력한 경관관리수단에 의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인공경관 형성
 - 카프리섬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를 비롯하여 우체통, 흙통 등의 위치를 정하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여 통일된 인공환경 조성을 유도
 -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카프리섬은 1985년 이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은 불가하며, 일부 개·보수만 허용함으로써 일관된 인공경관 형성을 유도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경관관리
 - 섬경관 관리와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흰색건축물과 지중해 바다의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는 특성적인 경관형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건축물 경관 형성
- 공공의 재정지원에 의한 해안마을 경관관리의 지속성 확보
 - 카프리시에서 청소비로 연간 350만 유로를 투자하여 깨끗한 섬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수행

2.3 이탈리아 아말피 · 포지타노 해안

(1) 현황 및 경관형성 추진배경

- 아말피 해안은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현 내 인구 5,353(2009)명의 해안마을로서, 나폴리 남쪽 70km 지점에 위치
- 북쪽으로 산이 있고 남쪽으로 살레르노 만을 마주하는 지형을 형성, 기후도 온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지
- '문화경관'시스템
 - 지역의 지리형태학적 특성과 생활문화가 상호관계를 통해 만들어 낸 산물, 즉 주거 중심의 건축구조가 대지와 주변공간,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말피해안만의 특성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이 지역의 중요한 경관가치를 창출

- 다양한 농경활동이 벌어지는 계단식 경관 및 가내수공업 등은 지역경관을 만들어 가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
- 199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선정되어, 유네스코 등재 아말피 해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연구 수행 후 2006년 제출됨

(2) 경관자원

□ 자연경관

- 아말피 해안은 친퀘테레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해안경관특성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해안마을
- 소렌토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말피까지 남서부 해안권을 연결하는 해안마을로 주상절리의 절벽과 조화를 이루는 해안경관 형성
- 해안과 산이 맞닿아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등지고 있는 산맥은 암벽이 형성되어 있어 13세기부터 천연적인 방어기능을 갖춘 해안마을



[그림 16] 아말피 해안 자연경관

□ 생활문화경관

- 아말피해안은 해안경관과 함께 역사적인 유산인 교회, 수도원이 남아 있어 해안절경과 함께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독특한 문화경관 형성
- 아말피 해안의 랜드마크인 18세기 두오모 대성당은 현재 호텔로 리모델링됨
- 이탈리아의 다른 해안마을과 마찬가지로 요트와 페리선착장이 있으며,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인해 활력있는 문화경관 형성
- 마을의 상점가로에는 아말피해안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향신료, 향수,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역사적 환경을 화폭에 담은 화가들이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려 팔고 있어 문화적인 다양성을 자연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음



[그림 17] 아말피 생활문화경관

□ 마을경관

- 친퀘테레와 유사한 해안지형을 갖는 아말피해안은 2~3층의 건축물이 능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새와 같은 건축물 장벽이 우수한 마을경관요소로 작용
- 아말피 해안도로에서 내려다보이는 마을들은 협곡에 형성되어 있어 절벽경관과 마을이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포지타노와 아말피, 프라이아노마을은 해안을 향해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이 밀집된 마을 경관 형성
- 구불구불한 경사진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다 보이는 절벽과 지중해의 코발드 빛 바다, 경사지에 조성된 하얀 회벽색의 군집된 마을경관이 조화를 이룸
- 특히 협곡사이에 형성된 마을은 불규칙한 해안의 지세를 연결하고 있음
- 포지타노 마을은 핑크색, 흙색, 연한 밤색의 건축물이 능선을 따라 건립되어 있어 바다색과 함께 특성적인 경관을 형성
- 친퀘테레 마을들이 5층 정도의 타워형 건축물로 군집되어 있다면 포지타노는 친퀘테레보다 건축물의 높이는 낮으나 절벽에 붙어 있는 건축물이 많아 절벽과 건축물이 일체인 경관 형성
- 당초 건축물들의 대다수는 흙으로 만든 건식기와로 지붕을 마감했으나 최근에는 석회로 덧씌워 흰색의 벽과 함께 포지타노만의 정체성을 갖는 마을경관 형성
- 포지타노의 대부분 해안가와 마을 진입로는 상가나 아틀리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레스토랑도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음. 각 상점은 주요 판매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한 간판을 디자인해 부착하거나 각 상점의 특수한 상품을 쇼윈도우나 외벽에 치장함으로써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점들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된 상업가로형성
- Praiano 마을은 다양한 색상의 건축물이 군집된 포지타노와 달리 대부분의 건축물은 흰색으로 마감되어 있어 통일된 구릉지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이 테라스 주택에는 레스토랑이나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어 고지대의 해안도로에서 조망대상이 되는 인공경관 형성
- 아말피 마을도 포지타노와 마찬가지로 해안절벽에 건축물이 관입된 형상을 띄고 있어 자연경관과 건축물이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



[그림 18] 아말피 해안 마을경관

(3) 경관형성 제도

- 2008년 기구가 폐쇄되기까지 Communita' Montana Penisola Amalfitana (아말피

반도 산림청)에 의해 관리, 이후 아말피 지역과 살레르노 평야 지역을 관리하는 보호기구인 Autorita' di bacino regionale Destra Sele (Sele 강 우측 항만 지역 관리 기구)으로 이전

□ 단위 지자체 별 경관계획 및 정책 수립

◦ 주 지역 단위

- 캄파니아 주는 도시 계획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을 통해 규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Province나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경관보호와 연동.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음
- 역사를 가지고 자리 잡힌 경관의 평가
- 쇠락한 경관의 재조명
- 지역마다 새로운 건조물의 변형이 가져오는 경관의 질에 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 가능하도록 주 단위로 경관관리 기준을 규정함. 이를 위한 경관단위의 중요지역들을 구분하고, 경관의 보호, 재조명,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별도 기구나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함

◦ 광역권 Province 단위

- 광역권은 캄파니아주의 기준들을 활용하면서 광역계획 Piano Territoriale Provinciale (PTP - Provincial Territorial Plan)을 수립.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관단위를 정하기
- 각각의 경관단위를 위해 기존의 성격, 광역권 시스템의 발전목표와 공존가능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기
- 역사적으로 정착된 경관환경(APS), 재조명이 필요 경관환경(ARP), 그리고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확대 적용하거나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형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관환경(ANP) 등을 구분하기
- PTP가 지향하는 발전목표를 토대로, 각 지자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된 기준들과 함께 자연 및 변화 객체를 규정하기. 각각의 도시계획의 성격과 다양한 분야를 참조하여, 지자체 법규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적용기준과 배경, 성격 등을 규정하기
- 각 지자체 시책 실현에 필요한 프로젝트 수립 기준 만들기

◦ 지역 단위

- 각 지자체는 PTP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행
- 지자체 도시 계획 수립.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S, ARP, ANP 등의 이용 용도를 구체화하기
 - ANP 내에 PTP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포진하기
 -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경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 지역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각각의 주체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과정적

계획의 실행 법규 만들기

- 지역공동체가 보존하고자 하는 요소들, 또는, 지역들의 특정이용용도에서 기인한 추가 이득을 참조로 하여, 경관의 보호 및 기금활용기준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 통합기금을 확보하기
- 민감한 시책의 계획을 위해 인증된 기구 (감독관, 대학 등)와 함께 상호 협의의 틀 도출하기
- 그리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은 지역 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지역 변형을 실제적으로 수행. 이들은 지자체 도시계획의 과정적 규칙을 프로젝트의 면적, 외형, 형식, 형태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관 안에 벌어지는 프로젝트들의 통일성, 일관성을 보장

□ 전통 양식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경관시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자연보전 및 역사지구 재생사업
- CMPA(Comunita' Montana Penisola Amalfinata)에 의한 투자
- 몇몇 지자체 정부가 공해물질의 해안방출을 제한하는 정수시스템 도입. 2002~5년 총 17,625,636유로 투자, 35건 사업 실행
- 삼림화재 예방 1,699,073유로, 재조림 사업 1,211,899유로 투자(2002~5년)
- 중심 역사지구 재생사업; 관광객이 닿지 않은 도시지역에 관한 회복. 2002~5년 105건
- 해안에 위치한 기념비적 자산의 재생 사업; 총 17,625,636유로 투자, 35건
- 주변 삼림과 연결된 기 전통양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
- 전통적 생산기술 회복 : 지역 내 노동력을 전통양식이나 이에 따르는 삼림 시스템의 보존에 끌어들이 수 있는 경제적 요인
- 현재 계단식 경관의 쇠퇴가 나타나는 지역과도 공존 가능한 재조림 사업
- 농업 지원 정책
- 급경사의 해안가를 연결하는 화물운반시스템 기계화
- 지원기금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 주변경관, 전통적 주거양식 회복을 위한 연대, 연합 시스템 촉진
- 수원, 인공관계 시스템 감독 및 수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연대, 연합 시스템 촉진
- 해안 생태계 및 오염 유입 요소 규명

(4) 경관특성

- 포지타노와 아말피는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개별 건축물의 관리수준이나 마감수준은 다소 낮은 실정이지만 유사한 건축물들이 군집되어 만들어내는 시각적 통일감에 의한 경관형성은 매력적인 경관요인으로 작용
- 포지타노의 해안을 따라 전망이 좋은 지점에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이웃하는 Praiano의 흰색건축물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 아말피 해안에서는 포지타노, Praiano, 아말피 등 마을자체가 조망의 대상이 되며 해안경관을 형성하는 경관요소로 작용



[그림 19] 아말피 해안 경관특성

(5) 시사점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중요성 부각
 - 아말피와 포지타노는 친퀘테레나 카프리에서처럼 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이나 상세한 관리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EU자금에 의해 관리
 - 주민주도의 관리 부재는 지속적인 경관형성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아말피의 경우 포지타노나 Praiano보다 지저분하고 관리가 미흡해 해안가에 쓰레기 방치, 물건적치 등의 현상이 나타남
 - 지저분하고 관리가 미흡한 아말피 마을은 우수한 자연과 역사문화적 자원이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따라 경관적인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과도한 디자인 억제와 경관저해 요인 제거에 의한 경관형성
 - 포지타노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건축물 경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자연자원의 잠재력이 부각되어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형성
 - 결국 과도한 디자인을 억제하고 가급적 경관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경관형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2.4 그리스 산토리니 섬2)

(1) 현황 및 경관형성 추진배경

- 산토리니 섬은 BC1450년 경 화산폭발로 특이한 경관을 갖게 되었으며 절벽으로 둘러싸인 침수된 칼데라의 모습이 남아 있어 장관을 이루고, 해안과 내륙 등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섬
- 섬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색채, 높이 등)를 통해 독특한 경관 연출
- 그리스 본토와는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키클라데스 제도의 최남단에 위치함. 면적은 73km² 이며 약 13,000명 거주. 행정구역상 티라 시(12,440명)와 오

2) 그리스, 이탈리아의 섬 관광, 국무총리조정실, 2007

이아(1,230명, 서쪽 테라시아 섬 해안의 268명 포함)로 구성

- 1960~70년대 초까지 이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에게해 신설(1985)후 개발·지원정책 수립
- 2000년부터 에게(Aegea)해 군도의 폴리네시안적 특성, 자연적 아름다움, 부유한 문화유산 등으로 세계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자 지역 관광발전 프로젝트인 ISTOS에 착수하여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

(2) 경관자원

□ 자연경관

- 화산폭발로 남아 있는 절벽으로 둘러싸인 침수된 칼데라의 모습 자체가 자연경관 요소로 가치 인식
- 화산섬의 특성을 갖는 산토리니만의 캐멀색의 토질과 조화를 이룬 경사지형의 포도밭 조성
- 저녁노을과 코발트 빛 지중해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과 조화를 이루어 산토리니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을 창출
- 섬의 푸른 녹지사이로 바다로 접근하는 구불구불한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생활경관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음
- 공항과 인접해서는 모래밭, 자갈밭 등 다양한 형태의 해변이 발달되어 있음



[그림 20] 산토리니 자연경관

□ 생활문화경관

- 산토리니는 대다수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광지형 해안마을로 구불구불한 계단길을 오르내리는 당나귀 행렬이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져 일상생활경관을 형성
-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의 운행이 당나귀 행렬과 어우러져 현대와 과거를 시각적으로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
- 전통적인 교회, 고대 아크로티리의 유물을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지진과 화산섬 폭발로 인한 성벽의 잔해 등 역사문화유산이 생활경관요소로 작용
- 능선을 따라 형성된 마을 곳곳의 중심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대부분 상업용으로 변용되어 레스토랑, 보석가게, 의류점, 기념품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행레벨에서의 생활경관 형성



그림 21 산토리니 생활문화경관

□ 마을경관

- 산토리니는 역사적인 마을인 Fira와 Oia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지역에 새로 조성된 마을들이 확장되고 있음
- 마을은 260m이상 되는 깎아지른 절벽위에 조성되어 있어 해변가나 바다에서 마을자체가 경관요소로 작용
- 경사지에 형성된 흰색 회벽의 마을은 구불구불한 계단을 형성하고 있어 자연지형과 인공적인 경관요소가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 회벽의 건축물 사이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음
- 보행자의 시각축 선상에는 바다 뿐 아니라 코발트색 돔 지붕을 갖는 교회들이 배치되어 있어 시지각적인 경관을 형성
- 건축물의 테라스는 교회돔과 발코니 난간 색상과 동일한 테이블을 배치하거나 고대 그리스시대의 물병에 코발트색으로 마감해 지붕이나 출입문 상부에 장식되어 보행레벨에서의 경관요소로 작용
- 창틀과 출입문, 발코니 색상은 코발트색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골목길의 난간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 흰색의 벽과 코발트색의 인공물이 자연환경인 하늘과 바다와 조화를 이룸
- 마을 정상부에서 내려다보이는 건축물의 테라스와 테라스형 풀장은 회벽의 건축물 마감, 코발트색 바다와 함께 또 다른 경관요소로 작용
-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계단과 경사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로 마감되어 있어 중세시대의 가로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골목길에 맞닿은 건축물 외벽의 일부도 돌로 마감되어 가우디풍의 이색적인 마을 경관을 형성
- 2m미만의 좁은 계단길로 형성된 골목길에 면한 개별 건축물의 진입은 테라스를 통해 진입하는 방식과 계단에서 직접 진입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음. 대부분의

주택 주출입구는 반공적공간의 작은 알코브를 통해 진입하고 있으며, 골목길을 따라 파란색 대문의 건축물 출입구는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보행레벨에서 시각적 다양성을 부여

- 또한 구불구불한 골목길의 난간도 모서리 없이 둥그렇게 마감하고 있어 전체 마을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난간에서 조망되는 바다와 강렬한 햇빛, 건축물의 색이 산토리니만의 특성적인 마을경관을 연출



[그림 22] 산토리니 마을경관

(3) 경관형성 제도

□ 철저한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

- 건축물의 높이, 색채, 옥외광고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은 지중해의 코발트 빛 바다와 하늘에 어울리는 파란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

□ 그리스 산토리니 건축가이드라인 운영

- 섬의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는 섬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적용
- 건축가이드라인에는 섬에 지어지는 건축물 모두에 적용되는데, 건축물의 높이, 색상, 창문의 모양 및 색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섬의 기존 건축물의 보전 관리에 주안점을 둠
- 이러한 건축 지침에 의하여 섬내 마을, 건축물은 이전의 형태와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건축물의 군집, 즉 마을이 하나의 어메니티가 되고, 이는 그리스 섬 관광 매력의 하이라이트를 제공



[그림 23] 산토리니 건축가이드라인 적용결과

□ 환경과 건축물의 조화

-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토속적인 디자인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음
- 건축물의 외벽색의 경우 흰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높이, 색상, 창문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하는 등을 통해 산토리니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냄으로써 건축물의 군집 즉, 마을 전체의 경관이 하나의 어메니티가 되고 있음

□ 개발정책의 기초 : 경관자원 보전 및 관리에 중점

-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
- 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시한 강력한 건축물 규제적용(색채, 높이, 창문모양 등)
- 경관 특성화와 독특성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 색채를 지정(흰색-파랑색)

□ ISTOS 프로그램

■ ISTOS : Innovation for sustainable and services in the South Aegean, 2000-2006

- 남부 에게해 지역의 혁신운동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의미의 E.U.의 혁신운동
- 지역개요
 - 키틀라데스 군도와 도데카니스 군도 중심의 남부 에게해 도서지역
 - 도서 총면적 5,286km², 78개 섬(43개 무인도)
- 목적
 - 남부 에게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창조
- 배경
 - 그리스 정부는 대상 지역이 폴레네시안적 특성, 자연적인 아름다움, 풍부한 문화유산 등으로 세계 관광객의 주목을 끌자, 지역 관광발전 프로젝트인 ISTOS에 착수
- 추진과정
 - 그리스정부는 1990년도 후반에 ‘국가혁신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남부 에게해 도서지역 관광개발 프로젝트 협력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특무기구로 The Chamber of Dodecanese 등을 지정
 - 2000년대 초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EU와 그리스내 각 지역간, 공동분야와 민간분야간 협력촉진, 정보와 가치공유 등을 위해 제3공동체 지원체제의 일종인 RINO network를 구축
 - 국고 25%, 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75% (총 131,806,236 유로)
- 주요 추진전략
 - 기본 인프라 정비(교통, 건강, 복지 등 기반시설 신축, 개보수)
 - 자연자원(물, 에너지, 생태계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유지
 - 관광지 개·보수 및 개발
 - 관광활동 극대화
 - 농어촌 개발 및 저개발 도서 지원
 - 테크놀로지 지원

○추진 방법

-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자간의 참여와 협동
- 혁신운동의 도입
- 신기술의 사용

(4) 경관특성

- 강력한 건축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일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산토리니는 섬에서 생산되는 회벽에 흰색 페인트로 마감. 일부 건축물은 캐멀색과 베이지색으로 마감하여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통일된 경관을 형성하면서도 다양한 경관이미지를 부여
- 산토리니 전체 건축물은 테라스형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구릉지의 능선에는 아치형 지붕을 얹은 건축물도 있어 다양한 건축형태에 따른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주요 조망점은 골목길에서 건축물을 배치하지 않고 시각을 바다로 향하게 열어 놓아 마을의 어디에서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음
- 화산폭발의 흔적이 마을의 곳곳에 남아 있고 요새가 형성되었던 곳의 흔적도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정취와 풍요로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성을 반영
- 자연경관과 인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산토리니는 사람들의 생활이 담긴 인문학적 특성, 자연적 특성, 건축물이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가고싶은 섬으로 인식



[그림 24] 산토리니 경관특성

(5) 시사점

□ 건축가이드라인 운영과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경관 어메니티 형성

- 산토리니는 건축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섬 자체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역 건축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 자체가 하나의 어메니티로서 중요한 관광자원이 됨

□ 중앙정부의 지원 시스템

- ISTOS 프로그램과 같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업체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해당 지역과 공통된 특성 및 개발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지역 간의 협동강화를 목적으로,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 포럼이나 소모임 및 지역 간 문화교류 이벤트 등을 조직)을 통한 다수 주체 참여에 의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3. 주요 방문기관 면담내용

3.1 친퀘테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 일시 : 2010.8.27. 10:00~12:00
- ☐ 장소 : 친퀘테레 국립공원 사무소
- ☐ 참석자 : Luca Natale(대표), Francesco Marchese(도시계획담당)

1) 친퀘테레 국립공원 설립 배경 및 개요

- 깎아지른 절벽과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형특성상 대부분이 11세기~13세기 경에 조성된 마을로 북서부 해안지역의 방어 요새로 형성되었음
- 다섯 개의 마을로 형성된 친퀘테레는 4,000ha로 3개의 자치단체가 있으며, Monterosso, Vernazza, Riomaggiore에 행정청이 있음
- 친퀘테레 또한 다른 농업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로의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해 쇠퇴와 인구감소 진행, 포도와 올리브 경작지 등이 버려지고 황폐해져 감
- 친퀘테레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는 역사적인 교회나 광장, 인프라 등의 수선, 유지 등이 어려웠으며 황폐해져 간 토지를 개선하고 개간하기가 어려웠음
- 친퀘테레는 30여년 전까지는 관광객이 전혀 없었으나 약 20년 전부터 우수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함
- 1997년에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같은 해에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됨, 1999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름
 - * 이탈리아에는 23개의 국립공원과 수백개의 지방공원이 있으며,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친퀘테레가 유일 함
- 국립공원지정과 함께 관련법에 의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 국립공원 지정이후 현재 지역주민의 주요 수입원은 농업에 의한 수입보다는 관광 수입이 더 많으며, 농업은 관광자원화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수단으로 경작지 보전과 확장에 힘을 쓰고 있음

2) 친퀘테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조직

☐ 조직구성 및 운영

-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의 지원에 의해 설립. 국립공원 관련법에 의해 관리사무소 재정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짐
- 국립공원은 12명의 상근인력이 있으며, 각 마을에서 형성된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인력은 200명~250명 정도임
- 마을단위의 행정적인 일과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은 3개의 코문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립공원과 코문은 상시적인 협조체제 유지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Riomaggiore 코문 건물에 있어 항상 같이 일을 한다는 인

식하에 모든 사업 추진

- 국립공원 운영재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200만유로/년와 국립공원 입장료수입 (약 200만 유로), 관광수입으로 들어오는 일부 비용으로 조달
 - * 입장료 수입은 국립공원관리와 관련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 조문을 차용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있음. 이러한 자원조달 방식은 이탈리아에서도 유일한 방식으로 친퀘테레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 기능과 역할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물리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휴먼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함
-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역할은 친퀘테레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과 함께 친퀘테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지원, 친퀘테레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
- 국립공원의 주요 역할은 친퀘테레를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도시계획적 차원의 내용으로 경관계획 포함), 지역주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EU 프로그램 포함), 국립공원으로서 친퀘테레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국립공원 운영에 있음

3) 경관계획의 수립배경 및 수립과정

- 친퀘테레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친퀘테레 plan 수립
- 도시계획적 성격을 갖는 친퀘테레 플랜에는 경관형성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친퀘테레 계획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시계획부에서 관장하고 제노바대학과 함께 수립하였고 3개의 코문과 협력과정을 통해 법정계획으로 수립
- 계획과정에는 5개 마을의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계획과정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과정을 거침
- 계획은 최초 2002년에 수립되었고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계획은 3년 정도 걸쳐서 수립하였으며 법적으로는 10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친퀘테레 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화과정을 거침
- 계획에는 친퀘테레 국립공원 관리와 개발, 발전을 위한 모든 요소들이 담겨져 있으며, 많은 요소들이 담긴 만큼 작성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음

4) 계획수립의 주요내용

□ 세분화된 조우닝에 의한 관리

- 계획은 친퀘테레의 인문사회적 현황, 지형적 현황, 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을 GIS로 분석하고 도면화하고 법적으로 지정된 보존등급에 따라 조우닝을 설정.

A~D까지의 조우닝으로 구분하고 토지이용과 상황에 따라 세분화 함

- 보존을 위한 조우닝과 토지이용계획이 중첩되어 전체 친퀘테레 토지를 세부적으로 관리
- 또한 토지의 사용용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 D 등급은 주로 마을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기반시설 설치정도에 따라 D3A, D3B 등으로 구분. A등급은 자연보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지역임
- B와 C지역은 경작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경작지 상태에 따라 세분화 하고 있으며 향후 경작지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담고 있음
- 특히 C1은 현재 농경지, C2는 이전에 농경지였으나 황폐해 진 곳, 또는 최근 버려진곳으로 향후 관리할 일이 많은 대상임. B는 주로 자연경관으로 산림에 해당

□ 종합적 시각의 계획수립 내용

- 계획의 내용에는 보존계획, 관광계획, 농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친퀘테레 계획에는 물리적인 계획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계획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주지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친퀘테레 국립공원은 '인간의 공원'이며, '인간을 위한 계획'임

5) 계획의 역할

- 모든 계획은 친퀘테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원관리계획이 수립
- 계획은 친퀘테레의 모든 토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전통도 보존하는 것이 목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함
- 일례로 5개 마을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Manalora에는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 있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Riomaggiore의 유아원도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계층이 친퀘테레로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6) 해안마을 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안마을 경관형성은 조우닝에 의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관리를 통해 이루어짐
- 특히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포도경작지는 주요 경관자원으로 보존,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
- 예를 들면 C 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원하는 토지주에게는 주변의 황폐해진 포도경작지를 개간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

- 경작지 개간을 하게 되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농업에 필요한 모노레일 설치 등의 인프라 시설 설치.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작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친퀘테레 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마을경관임
- 마을경관은 주로 중세부터 19세기에 건립된 건축물과 최근 관광지화되면서 건립된 콘크리트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위해 공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건축물 재료와 컬러실험을 거쳐 재료, 색채, 자연재료를 사용한 시공가이드라인 등을 설정
- 특히 색채는 친퀘테레 토양과 바다를 상징할 수 있는 재료의 특성을 살린 색채로 재료와 색채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하고 있으며, 돌로 외벽을 쌓는 방법, 외벽 마감방식 등에 대한 세부 디테일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여 건축물 신축, 개축 등을 허가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주택성능개선은 일반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건축물 지원금액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7) 친퀘테레 관광자원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관광수입으로 들어오는 20%의 비용은 농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지관리에 투자
- 관광수입을 늘이기 위해 2003년부터 철도회사와 함께 친퀘테레 마을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교통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친퀘테레 티켓을 발행(1일 8.5유로). 대부분의 수입이 친퀘테레 티켓으로 유지
- 마을입구마다 입장료를 받고 있고, 주요 조망점을 형성해 입장수입을 증대
- 5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트래킹 코스를 개발(5시간 정도)하고 친퀘테레 마을에서 주요 조망장소까지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행, 다양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안내
- 1년 10달정도 평균 250만명의 관광객 유입

8) 친퀘테레 국립공원 설립 효과

- 친퀘테레 국립공원 설립 후 50년 계획을 전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0년 정도 지났으나 많은 성과 나타남
- 청년계층이 친퀘테레로 돌아오고 있으며, 외부 사람들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찾아오고 있음. 정주민구가 5000명 정도로 현재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한번에 15명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음
- 특히 포도경작지의 건식벽 쌓은 방법, 토지를 유지관리하는 방법 등 주로 관광서비스와 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년에 한번씩 EU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이와 함께 연계하고 있음

9) 한계

- 친퀘테레 전체 정주민구가 5,000명 정도로 아주 적어 전체 경작지를 개간하고 관리하는데 인적자원 부족

3.2 경관 및 도시계획가 면담

- 일시 : 2010.8.30. 12:00~15:00
- 장소 : 바리시내
- 참석자 : PhD Marco Patruno(계획가)

1) 연구분야 및 활동

- 살렌토 지방을 근거로 도시계획 및 연구활동 중. 사무소 MAPSTUDIO (MEDITERRANEAN ARCHITECTURE AND PLANNING) 운영하며 지중해지역 프로젝트, 도시 경관 계획 수행
- 박사논문 **Sud: microstorie di una differente modernità. la penisola salentina. marginalità in movimento.** - 살렌토 지방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현대화방안연구

03 esplorazioni --	61
L2. microstorie dal Salento --	62
m03.01 rural chic. le masserie come nuove centralità --	63
03.01.01 l'area delle masserie fortificate di Lecce --	66
03.01.02 la spinta istituzionale nella Terra d'Arneo --	71
m03.02 la calce oltre la pietra leccese. Le città bianche --	77
03.02.01 Award Eden 2007. Specchia borgo rurale internazionale --	80
m03.03 colonizing the void. l'energia rurale e pulita --	84
m03.04 agro-spazi collettivi --	90
03.04.01 il parco agricolo dei Paduli --	93
m03.05 pratiche di turismo sostenibile --	95
03.05.01 il surf e la città informale a Torre Chianca --	96

[그림 25] 논문 목차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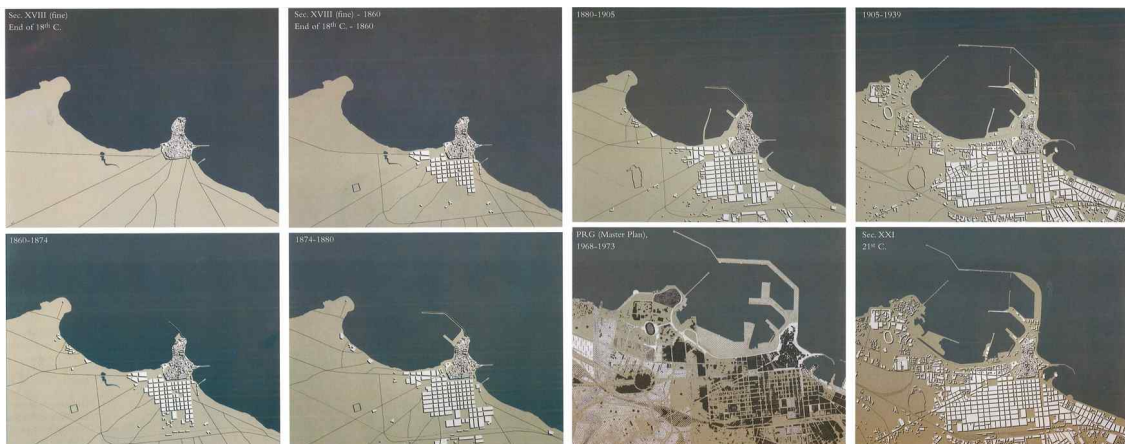
- 세련된 전원(RURAL CHIC), 빈 공간의 활용(무공해 에너지의 생산), 농지의 공공공간(공원)화, 지속가능한 관광화 사례(지중해와 서핑) 등의 아이디어 제시



[그림 26] 살렌토 해안 주거지 현황 _ 논문 중

2) 바리시 개요 및 도시구조

- 이탈리아 풀리아 주의 중심지로서 아드리아틱(Adriatic)해에 면함
- 인구 약 32만명으로서 인구가 다소 줄고 있지만, 근교 지역이 도시화되어 200여 km²에 65만여명 거주
- 아드리아틱 해의 주요 길목으로서, 이탈리아에서 나폴리 다음의 주요 무역항이 있음. 지중해 곳곳으로 페리 운항
- 유럽에서 가장 긴 도시해안(urban seafronts, 42km) 보유
- 18C 이전부터 반도지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발달, 도시와 함께 항구 규모도 확장되어 지금은 두 개의 반도를 걸쳐 거대 항구(Great Harbor)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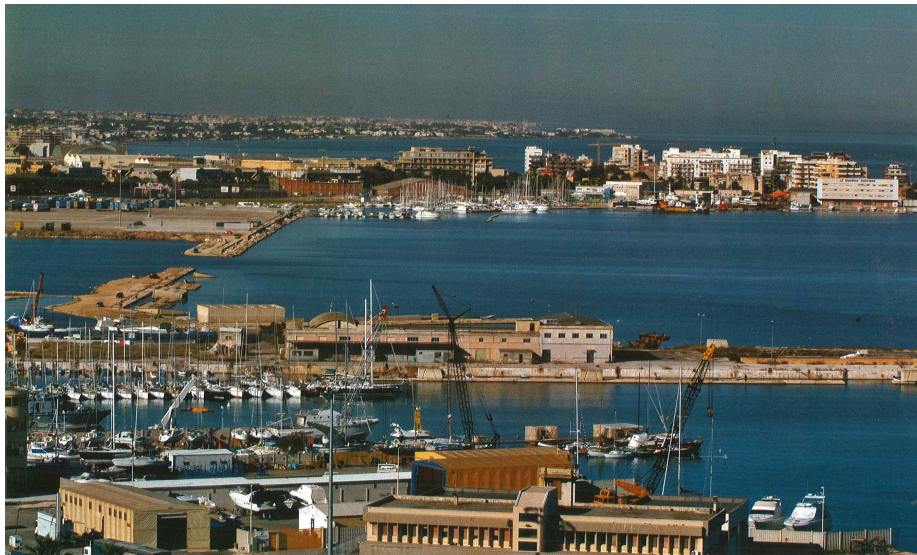
[그림 27] 항구와 함께 발달한 바리시 도시구조 변천(18C~현재) _ 그림출처: Il Porto Di Bari

- 서쪽 항구는 구시가지(Old Town)으로서 이슬람적 특성(불규칙한 거리, 쿨데삭, forked street) 과 그리스-라틴적 전통(평행한 가로, 긴 블록), 아풀리안 중부지역 (Apulian medieval centres)의 일반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음.
- 구 시가지는 Great Harbor와 요트와 어선이 있는 옛 부두를 분리



[그림 28] 구시가지 전경, 두 항구를 분리_그림출처: Il Porto Di Bari

-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남측 신시가지(Murat quarter) 격자형 구조
- 1900년대 형성된 San Cataldo 반도는 Great Harbor의 북측 반도 지역
- 원래의 교외적 성격(빌라와 가든 많음)이 신축건물들로 교체되면서 사라지고 있음. 바다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거주지역으로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



[그림 29] San Cataldo 반도 전경 _그림출처: Il Porto Di Bari

- 주요 건축물로서 11세기에 지어진 성 니콜라 바실리카 (The Basilica di San Nicola)와 바리성당 (Cattedrale di Bari or Cattedrale di San Sabino), 프레드릭 2세를 위한 스와비안 성(Swabian Castle built for Frederick II) 등이 있음

3) 이탈리아 남서해안의 경관계획

- 친퀘테레와 달리 해안경관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등은 부재. 훌륭한 해안의 자연경관에 비해 인공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 이는 주민의 의식 및 주민조직의 활동여부와 관련지을 수 있음
- 경관계획 역시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광역적 계획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3 바리대학 해안경관계획 전문가 면담

- ☐ 일시 : 2010.8.30. 15:00~18:00
- ☐ 장소 : 바리대학 건축학과 부학장실
- ☐ 참석자 : Prof. Maria Valeria Mininni(바리대 교수) , PhD Marco Patrino(계획가)

1) 이탈리아 동해안권 경관계획 수립배경

- 이탈리아 동해안권은 수많은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해안으로 리조트와 휴양지로 발달되어 있음
- 해안권의 자연요소를 발굴하고 경관측면의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관계획 수립 목적임
- 리구리아 해안의 산악경관과 달리 아트리아티코 해안은 모래사장과 자갈로 이루어진 평지의 경관을 형성
- 기술적인 계획기준은 있지만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계획의 관건으로 작용
 - * 일례로 기술적 기준으로는 파도가 치는 해안권의 300m이내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거나 공공해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은 있으나 인문학적 측면에서 경관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준은 없었음
- 최근 조사하고 계획된 경관계획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바리대학에서 경관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 실제 실행수단을 만드는 계획은 아니지만 실행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경관계획의 방법론

- 자연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으며, 조망점을 찾고 토질의 종류, 상황,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
-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경관분석 수행
- 법규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조우닝과 지자체 레벨에서 정하는 규정, 장소단위로 정하는 규정 등을 중첩시키고, 지역단위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전체 경관과 토지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면 작성
- 지형, 지질, 토지이용 등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를 GIS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3개 레벨의 스케일을 구분하여 계획적 접근. 광역적인 레벨에서 중시되어야 할 경관요소와 미시적 레벨에서 중시되어야 할 경관요소를 분석, 궁극적으로는 토지이용관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
- 이탈리아 동해안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해안권이 선형의 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 또한 권역별로 시각적으로 하나로 인식되는 단위, 관리단위 등 보여지는 자원, 관리되어야 할 자원 등에 대해 경관단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 경관단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관리방안 등을 제시
 - * 제주도 경관계획에서도 경관단위를 설정하여 계획수립

3) 경관계획과 조우닝 시스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우닝 체계에서 크게 4가지 조우닝으로 구분해서 경관자원을 조사, 보존되어야 할 자원과 관리되어야 할 자원을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
- 조사결과와 조우닝 체계와 중첩하여 제시된 결과가 각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제공
- 특히 생태환경은 경관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 농경지나 토양, 산림 등의 자연생태계와 인공생태계가 접하는 부분에 대해 충실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4) 해안경관계획 수립의 주안점

- 모든 경관계획은 수립된 계획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경관요소와 도시계획/도시설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경관자원조사와 도시계획상 조우닝체계의 긴밀한 연계는 실행력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조건임
- 해안도시의 건축물 관리도 전체 경관계획 내용을 토대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각 장소에 대해서는 친퀘테레와 같이 장소별 관리계획과 경관형성방안을 수립

5) 해안도시나 마을 경관계획에서 주안점

- 해안도시의 역사적인 도시가 많으므로 보존계획이 새롭게 조성하는 경관형성계획 보다는 중요시 다루어짐
- 해안조망을 위한 고층화 경향은 없으며, 신축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고층건축물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중층이하로 건설되고 있음

6) 해안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 코디네이터 중심

- 모든 경관계획은 수립된 계획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경관요소가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중요함
-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생태학을 비롯하여 인문사회,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이 필수적임

- 또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공적인 경관관리 주체와 자연적인 경관관리주체, 각 지자체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계획을 이끌어 가는 총괄 책임주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동해안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그룹을 정하고 그룹 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의견조정을 수행할 코디네이터를 선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침

*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코디네이터를 선임하여 계획수립하고 있으며,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문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코디네이터 결정됨. 동해안 경관계획에는 0000이 코디네이터 역할로 참여

- 이번 해안권 경관계획은 지역간 연계가 가장 어려웠으며, 3년동안 각 지자체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근에 완성함

7) 해안도시 또는 마을계획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 각 지자체별로 장소단위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경관관리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님
- 다만, 건축술이나 지역성을 반영한 재료사용방법, 색채 등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변과의 통일되고 일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켜나가는 분위기도 있음
- 바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회생산량이 적고 돌이 많아 건축물에도 돌로 마감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지역소재인 돌을 축조하는 방식, 돌에 의한 색채 등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 트롤리의 경우도 석재로 축조된 것으로, 보존되어야 할 트롤리는 증개축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신축 또는 증개축은 가능, 이 때 석축 쌓는법, 건식벽 쌓는법, 원형삼각뿔 형태의 지붕 쌓는 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제시

8) 해안도시 또는 마을 경관관리방안

- 동해안권의 해안도시와 바리나 리스와 같이 도시화된 지역이 많으며, 일부는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음
- 도시화된 지역은 외각으로 소규모 휴양지나 전원주택 등의 건설로 스프롤의 경향을 거치고 있음. 경관자원 조사를 통해 개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지자체에 제시하는 역할을 함

9) 경관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방안

- 이탈리아는 지역별 노동조합, 상공인 단체 등 자치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견수렴
- 홈페이지에도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법적인 절차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과정에서 계획수립주체와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도 있음
- 지역주민들은 통일된 경관형성, 지역성을 반영한 토지이용관리가 관광화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서 스스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

10) 경관계획과 도시계획간의 관계

- 과거에는 경관계획을 자연경관계획 중심으로 별도로 수립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통합하여 수립
- 경관자원을 활용한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려면 계획을 분리해서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11) 기타

-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동해안권 5개 프로젝트는 PPTL로 부르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계획과 도서들을 볼 수 있음
- 기본적인 자료와 도면들을 홈페이지에서 제공

4. 시사점

□ 체계적인 경관관리방안 마련에 의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해안경관계획 수립에 의한 마을단위 경관형성방안 추진
 -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경관관리계획을 토대로 마을특성에 따라 건축물 디자인, 농경지 보존을 위한 토지관리, 건축허가에 따른 경작권 의무화 등의 실천적인 경관관리 수단 적용
 - 계획적 관리에 의해 해안마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관단위로 설정하여 경관형성방안 마련
-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해안마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 경관형성의 개념에 경관보존과 관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경관자원 조사를 토대로 보존해야 할 요소와 경관저해 요소를 도출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
 - 마을자체를 하나의 경관단위로 설정하여 시각적인 관리와 규제수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태환경과 자연환경 자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
 - 그리스 산토리니와 이탈리아 카프리섬은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 기존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수단으로써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특히 건축물에 대한 재료, 색채, 형태, 부속시설물 등의 설치 기준을 작성하여 모든 섬에 적용
- 지속적인 해안마을 관리 및 경관형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 강구
 - 작성된 디자인 지침과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의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경관형성 추진

- 해안경관과 마을, 지역주민의 상호융합에 의한 주민의 경관형성 의식 고취
 - 그리스 산토리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건축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흰색 회벽의 집합된 구조물이 훌륭한 경관자원으로 알려져 관광객 유치
 - 이탈리아는 지자체가 작성,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으나 지역주민 스스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공공이 제한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지킴으로써 조화로운 인공경관형성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 추진
 - 해안마을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

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해안마을의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개발행위가 일부 제약될 수 있으므로 경관관리 자체가 지역의 환경개선에 유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행정이나 전문가가 일방적인 경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협조와 소통, 의견을 수렴하고 정례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관의 잠재력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각인

- 지역주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 고도의 기술력 적용과 특화된 디자인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디자인기준만 보면 경관형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선택방식, 공사방식, 경작지 조성방식 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포
- 친퀘테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식재방법, 석축쌓는 방법 등을 지역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 홍보
- 경관형성사업에 지역주민조직 참여에 의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 이탈리아 친퀘테레는 경관조사 및 경관계획 수립 전 과정에 마을별로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상시적 참여를 위해 online-offline상에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 운용

- 중앙정부차원의 경관형성 정책제시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 해안마을의 정취를 살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해 경관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시와 함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병행
- 그리스 산토리니는 ISTOS 프로그램과 같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낙후된 도서벽지의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지, 관광지 개보수 및 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EU와 함께 지원
- 친퀘테레는 문화역사자원 보존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200만 유로를 지원받아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

□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잠재적인 경관자원의 발굴 및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경관사업 유지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 이탈리아 친퀘테레는 전통적인 생활문화경관을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국립공원 전담기구를 비영리단체로 설립하여 경

관을 보전하면서도 이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생태환경을 비롯한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물리적 마을환경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한 프로그램개발과 하드웨어적인 경관형성방안을 병행
- 낙후한 해안마을의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전담부처 설치 운영
- 그리스는 낙후된 해안마을과 섬을 지원하기 위해 에게성을 설치, 에게해 지역의 섬지역에 대한 지역관광발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로 경관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
- 해안마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역단위의 해안경관관리와 함께 마을경관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단위의 지원부서 필요

□ 해안마을경관의 관광자원화로 지역활성화에 기여

- 건축물의 집합으로서 해안마을의 인공경관을 경관자원으로 관리 및 형성
- 개별 건축물의 형태, 색채, 재료 등 물리적인 특성을 경관자원으로 관리함으로써 조화로운 건축물의 군집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마을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 건축물에 의한 인공적인 경관자원과 전통적인 경작지(포도밭, 올리브밭 등), 수산업 행위, 해안사구, 바다 등 자연자원을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하기 위한 방문객 유치에 기여
- 이탈리아 친퀘테레는 마을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개발 관련산업 지원
- 그리스 산토리니는 ISTOS에 근거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수기에 호텔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에게 일정부분 국비를 보조, 호텔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 사업성을 거쳐 국고 일정부분 지원
- 이탈리아 카프리섬의 경우 깨끗한 섬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연간 300억 유로의 청소비용 투자
- 친퀘테레 국립관광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무료로 교육기회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의 20%를 포도 및 올리브밭 운영에 투자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관자원을 발굴, 보존, 형성함으로써 경관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수행

□ 해안마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각의 경관형성

-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활환경과 생태환경, 물리적 환경의 질서와 조화 도모
- 바다와 절벽, 지형 등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해안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안마을의 경관요소의 구성질서를 찾는 일로써 경관형성사업 추진

- 이탈리아 친퀘테레는 구체적인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각 등급에 따른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역의 특성적인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잠재력 창출 지원
- 해안마을 마다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경관자원으로 활용하고 인위적인 개발방식은 지양
- 새롭게 조성하는 인공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장식물 등의 설치에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건축양식, 해안마을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관저해 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임
- 이탈리아 친퀘테레는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문화경관인 계단식 포도밭을 주요 경관요소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친퀘테레만의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해안마을로 부각됨

부록 : 이탈리아 경관관리제도 조사

1. 아말피

☐ Costiera Amalfitana (Provincia di Salerno)

- 1) 개요
- 2) 지역 현황 개괄
- 3) 지역의 사회구조 분석
- 4) PTCP
- Piano Territoriale di Coordinamento Provinciale

1) 개요

(1) 지역 분류 및 명칭

Costiera Amalfitana (아말피 해안) - 1997년 UNESCO 세계 유산으로 선정됨 (II, IV, V³⁾ 등급)

(2) 일반 정보

- 캄파니아 주 Campania Region, 살레르노 광역권 Province of Salerno
- 총 해안선 길이 : 42km
- 총 인구(아말피 지자체 내) : 5,345명 (2009년 12월 현재)
- 아말피 해안은 소렌토 반도의 남쪽에 위치하며, 살레르노만을 바라보고 있는 서쪽의 Positano에서 동쪽의 Vietri sul Mare에 이르는 지역이다.
- 해당 지역 (Comune - 지자체 단위) : 소렌토 반도 내의 Amalfi, Atrani, Cetara, Conca dei Marini, Furore, Maiori, Minori, Positano, Praiano, Ravello, Scala, Tramonti, Vietri sul Mare, Corbara, San'Egidio del Monte Albino.

(3) 관리 주체

- 2008년 기구가 폐쇄되기까지 Communita' Montana Penisola Amalfitana (아말피 반도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었고, 이후의 관리는 아말피 지역과 살레르노 평야 지역을 관리하는 보호기구인 Autorita' di bacino regionale Destra Sele (Sele 강 우측 항만지역 관리기구)으로 이전되었다.

3) ■II.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IV.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V.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

(4) UNESCO 세계 유산 선정 관련 과정 개요

- 1996년 Communita' Montana Penisola Amalfitana와 살레르노, 아벨리노 지역의 경관감독부처가 함께 아말피 해안을 UNESCO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1997년 12월 5일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2004년 5월 Paestum에서 열린 제2회 국내 UNESCO 세계유산등재 지역총회를 맞이하여, 중앙 정부의 문화부는 UNESCO 세계유산문화재 관리계획을 발표한다.
- 2004년 9월에 열린 아말피 해안 지자체장 총회에서 아말피 해안 관리계획 수립을 Communita' Montana Penisola Amalfinata에 위임한다.
- 2005년 2월, Communita' Montana Penisola Amalfinata, 살레르노, 아벨리노 지역의 경관감독부처와 문화재를 위한 유럽 대학기구가 UNESCO 등재 아말피 해안 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서를 마련했다.
- 이어 UNESCO 등재 아말피 해안 관리 계획의 예비연구가 수행되어 2006년 12월 지자체장 총회에 제출되었다.

(5) 아말피 해안 관련 주체

- 지역 간 공존가능하고 효과적인 규칙의 적용을 위해, 지역의 보호, 보존 및 각각의 개체가 진행하는 복합적 실행을 감독하는 주체들은 지역 내에서 취해진 대책들이 생태계를 존중하는 성격의 실행인지, 또 실행주체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실행인지를 평가한다.
- 역사적으로 자리 잡은 경관의 쇠락은 대부분 지역자원의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부족한 활용⁴⁾, 그리고 그 경관을 만들어 온 원래의 지역적 사용방법의 변화⁵⁾에서 기인함을 고려할 때, 경관에 대한 양적 제한이나 금지⁶⁾가 대부분인 보호정책⁵은 실제로 경관의 불법적 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 주 Region 단위

- 캄파니아 주는 도시계획법이나 관련특별법 등을 통해 규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는 Province나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들에 의해 실행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경관보호와 연동된다. 몇몇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음
 - 역사를 가지고 자리 잡은 경관의 평가
 - 쇠락한 경관의 재조명
 - 지역의 새로운 변형이 가져오는 경관의 질에 대한 주의로서, 이는 공존가능한 변형을 주단위로 규정하기 위한 중요 지역들을 구분하게 하고, 또한, 경관의 보호, 재조명,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역기구나 각각의 이해당사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한다.

4) 전통 농업의 포기,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고밀도 활동

5) 농경 지역 내의 새로운 편의나 도시화를 위한 농업 활동 변화

6) 대지나 구조물, 저층 건축물의 기존 높이나 밀도의 변화 불가

□ 광역권 Province 단위

- 광역권은 캄파니아주의 기준들을 활용하면서 광역계획 Piano Territoriale Provinciale (PTP - Provincial Territorial Plan)을 수립한다. 그 내용은
 - 경관단위를 규명하기
 - 각각의 경관단위를 위해 기존의 성격, 광역권 시스템의 발전목표와 공존가능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기
 - 역사적으로 정착된 경관환경(APS), 재조명이 필요한 경관환경(ARP), 그리고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확대 적용되거나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관환경(ANP) 등을 구분하기
 - PTP가 지향하는 발전목표를 토대로, 각 지자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된 기준들과 함께 자연 및 변화 객체를 규정하기
 - 각각의 도시계획의 성격과 다양한 분야를 참조하여, 지자체 법규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적용기준과 배경 및 성격 등을 규정하기
 - 각 지자체 시책 실현에 필요한 프로젝트 수립 기준 만들기.

□ 지역 단위

- 각 지자체는 PTP가 추구하는 바를 다음을 통해 실행한다.
 - 지자체 도시 계획 수립. 그 주 내용은
 - : APS, ARP, ANP 등의 이용 용도를 구체화하기
 - : ANP 내에 PTP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포진하기
 - :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경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 : 지역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각각의 주체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과정적 계획 실행 법규 만들기
 - 지역공동체가 보존하고자 하는 요소들, 또는 지역들의 특정이용용도에서 기인한 추가 이득을 참조로 하여, 경관의 보호 및 기금 활용 기준을 활성화하기 필요한 주의 통합 기금을 확보하기
 - 민감한 시책의 계획을 위해 인증된 기구(감독관, 대학 등)와 함께 상호 협의의 틀 도출하기
 - 그리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은 지역 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지역 변형을 실제적으로 수행한다. 이들은 지자체 도시 계획의 과정적 규칙을 프로젝트의 면적, 외형, 형식, 그리고 형태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관 안에 벌어지는 프로젝트들의 통일성,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지역 현황을 시사 하는 신문 기사 : 1987년 2월 11일자 Repubblica지
- * "아말피 해안 - 지역 경관 계획을 위한 마지막 SOS"
- 안토니오 체데르나, 로마

2. 친퀘테레

☐ Cinque Terre

- I. 개요
- II. Cinque Terre 국립공원 계획 (Piano del Parco)
- III. Agenda 21 – Vernazza

I) 개요

(1) 지역 분류 및 명칭

Area Naturale Marina Protetta delle Cinque Terre (Protected Natural Marine Area of Cinque Terre)

(2) 일반 정보

- 총 면적 : 2,800 ha
- 총 해안선 길이 : 약 16km
- 해당 지역 (Comune - 지자체 단위) : Levanto, Monterosso al Mare, Vernazza, Riomaggiore (Provincia di Sapienza - Sapienza Province) - 이 중 Monterosso al Mare와 Vernazza는 관할 해안선 전체가 보호 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특별 보호 구역: A 총 (integral) 보존 구역 100ha, 해안선 2km
- 그 외 : B 일반 보존 구역 200ha, 3km / C 부분 보존 구역 2,500ha, 11km

(3) 관리 주체

Cinque Terre 국립공원기구 (Ente Parco Nazionale delle Cinque Terre)
www.parconazionale5terre.it info@parconazionale5terre.it

(4) Cinque Terre 국립공원 역사

☐ UNESCO 선정

- 1997년 12월 나폴리에서 개최된 UNESCO 정기총회에서 Cinque Terre 지역, Portovenere, 그리고 Palmaria와 Tino의 섬들이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7) 이탈리아어로 Paesaggio는 엄밀히 말해 영어의 Landscape, 한국어의 '경관'과는 의미가 약간 달라서 이들보다 좀 더 폭 넓은 의미를 가지며, 프랑스어의 Paysage와 비슷하다. Paesaggio는 단순히 보이는 '경관'만을 의미하기보다 그 지역 안의 비물리적 성향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주제 인식, 정책 수립 등에서 이탈리아가 좀 더 포괄적인 성향을 보이는 하나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Paesaggio를 '경관'으로 번역한다.

Paesaggio Culturale (Cultural Landscape)"으로 선정되었다. 2001년 현재 UNESCO에 등록된 800여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 경관"으로 분류된 지역은 약 20여개뿐이다.

- Cinque Terre의 경관이 가지는 특별함은 오랜 시간 지녀온 전통 농경 형태⁸⁾, 지역 역사 안에서 자리잡아 온 지역의 도시형태와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이다.

□ 지역공동체의 의지

- 1997년 Monterosso, Vernazza, 그리고 Riomaggiore 지방의회들이 공공회의를 갖고 국립공원 기구 조성을 요청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기로 동의하였다. 국립공원 기구를 계기로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모아졌는데, 이는 Cinque Terre 지역이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러한 인식이 지역가치의 보존과 보호에 국가차원의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 Cinque Terre 국립공원 기구 설립 과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국립공원이 상위기관에 의한 결정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 이탈리아 국립공원들과 다른 독립적인 행보를 보인다.

□ 국립공원 기구

- 1999년 10월 6일자의 대통령 법령에 따라 Cinque Terre 국립공원 기구가 설립되었다. 국립공원 지역은 4,226ha에 이르며 약 5,000명의 인구가 생활한다.
- 공원 정관 제1조 5항에 따르면 "지역의 경관, 농업, 그리고 문화역사적 의의의 가치를 위해 공원지역 내에 Cinque Terre 구역을 구분하였다." 국가적으로 몇몇 공원 지역 가치의 특이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농업경관의 특징들,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고 보존되어야 할 인간 노동 역사 등이다.
- 1999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Il vino del mare: il piano del paesaggio tra i tempi della tradizione ed i temi della conoscenza (the wine of the sea: the landscape plan between times of tradition and times of awareness)" 세미나를 계기로 준비되기 시작하여 2001년 정립된 Cinque Terre 국립공원 계획 (Piano del Parco)이 관련 국가법, 주법, 지자체법 등을 대체하게 되면서 실행 중이다.

□ 경관문화

- 위에 언급한 국립공원 조성과정에서 보인 지역공동체의 의지 등을 통해

8) Liguria 지역은 해안선이 주로 암석,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절벽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농업형태가 정착되었다. 역사적으로 계단식 농업이나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을 이용하고 그 주변에 조성되는 미세 기후를 활용하여, 포도, 올리브, 바질 등 특용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Cinque Terre 국립공원은 이러한 지역 역사, 경관의 자취를 가장 중요한 가치 요소 중 하나로 다루며,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농업 경관', 즉 계단식 농업 경관 그와 연관된 '인간 노동'의 역사적 가치 등이다.

Cinque Terre 국립공원이 보이는 앞서가는 경관문화를 인지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두 가지 정도의 면모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인단들 또한 Cinque Terre가 전통문화와 지혜의 가치를 보여주는 특별한 이미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안의 널리 퍼진 공동체 문화, 어찌 보면 분명하게 인지되지 못하지만 공동의 의식에 기반을 둔 공동체 문화가 지역공동체로서 특별 보호 정책의 요구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두 가지 면모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 다르기는 하지만 '경관'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에 공통의 의미를 공유한다. 즉, 모두에게 경관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구축해 온 인공의 세상과 자연의 세상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내포하는 수세기 동안의 역사를 인지할 수 있는 지역의 이미지이다.

□ 지역 정체성 보호의 역사

- Cinque Terre 경관보호는 오랜 역사를 가지는데 이는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경관을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비롯한다. 중세 초기부터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관보호의 움직임은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와 '공동의 의식'에서 나오며 이들 자체도 보존되어야 할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다. 수세기동안 확장되어 온 농업은 지역의 유지, 즉, 지역 경관의 보존을 이끌어 왔다.
- 지역에서의 관심을 통해 Cinque Terre 경관의 정체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 정체성은 지역경관의 파노라마와 이미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에서, 또한 전통 농경 활동을 통해 각자의 생활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났다.
- 그 후 전통농경활동이 점차 중지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보존도 줄어들어 갈 때 즈음 전문기관, 각종 규제, 그리고 계획들을 통한 보존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Cinque Terre 지역은 1939년의 경관규제 1497/39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후 국립공원으로 제정되기까지, 1980/81에 I.L.R.E.S⁹⁾가 리구리아 주법 (Regional Law) 1977/4에 의거, 제안했던 공원계획에 따라, 그리고 주법 1985/12에 의거, 제안되었던 'Bracco Mesco Cinque Terre Monte Marcello 지역 자연환경시스템' 계획에 따라 주립공원으로서 정비되었다.

(5) Cinque Terre 국립공원 특징

□ 자연의 인공화

- Cinque Terre의 자연생태계 균형의 법칙-땅 물, 생태계 요소에 관한-은 인간 활동에 의해 깊숙이 변화되어왔다. 땅과 배수의 자연구조는 계단식 농업방식에 맞추어 변형되어왔는데, 가장 확장되었을 때는 1,000ha, 즉 전 공원지역의 1/3에 달하기도 하였다. 계단식으로 변형된 지역의 자연 식생은 농경작물로 대체되었다. 대부

9) Istituto Liguria di Ricerche Economiche e Sociali - 리구리아 경제 사회 연구소

분은 포도주용 포도재배이고, 소규모의 올리브 재배도 포함한다. 밤나무 재배도 지역 농업경제의 보완을 위해, 식용을 위해, 그리고 포도밭 조성 및 유지를 위한 목재 공급을 위해 도입되었다.

- 지역 내 자연 생태계는 지역경제 상황과 필요성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인공환경과 적응해 왔다.

□ 인공환경의 자연화 (재자연화)

- 오늘날에는 과거 행해졌던 자연환경의 변경이나 계단식 농경생태계의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지역경제는 이윤이 떨어지는 농업을 점차 포기하면서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다른 출구를 찾았다. 이와 더불어 농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지역경관관리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으면서 농업 생태계의 불균형과 생태계 안정의 퇴화가 진행되었다. 지역의 문화형성과정을 주도하던 나름의 규칙들이 해체되고, 자연의 법칙이 다시 나타나면서 기 조성되었던 인공구조물들, 계단식, 그리고 특유의 농경시스템을 제거하고 있다.
- 자연이 다른 균형의 구조로 재편성되기 전에는 정착을 위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 기간이 화재나 심각한 수리 문제의 위험이 커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Cinque Terre 안에서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자연재앙이 나타나기도 한다. 총괄적인 예방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정체성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관의 소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역설적이게도, 전통적 삶에 의해 조성되었고, 또, 전통적 삶의 형태를 관광업 등을 위해 포기하면서 소실의 위험에 노출된 Cinque Terre의 경관은 오늘날 그들이 전통의 삶 대신 선택한 관광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상호 관계가 Cinque Terre 지역의 계획,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항상 보이는 경관의 보호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통요소, 사회요소, 지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유이다. 즉, '경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의 확립과 지역민과의 공유가, 단순히 박물관화 되어 보여지는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지역민을 포함하는 공원(lived park)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근간인 것이다.

(6) 경관 보호를 위한 정책, 계획¹⁰⁾

10) 국제적, 유럽의 정책들,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정책들 부분의 상세 설명은 생략함.
Cinque Terre관련, 그 주요 움직임으로는,
UNESCO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와 Natural Heritage 등급 도입 (1972)
UNESCO - 위에 Cultural Landscape 등급 추가 도입 : Cinque Terre 포함
ICCROM (UNESCO) -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연구, 1999
UNESCO회합 - Riomaggiore (1999), Tokaj (2001)
World Monument Fund : 2000년부터 Cinque Terre 보존 연구 지원
EU -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2000)
The Cork Declaration - The European Conference on Rural Development (1996)

□ 리구리아 주 정책 - 환경계획의 통합 비전

- 보호지역에 관한 법 394는 Cinque Terre 국립공원 계획 (이하 <계획>)이 "...모든 위계의 경관계획, 지역 또는 도시계획, 그리고 모든 계획기구를 대신한다"라고 규정한다.
- <계획>에는 리구리아 주에서 환경 및 경관관리를 위해 수립한 계획도서나 방법의 개념, 목적이 반영되었고, 기존의 여러 계획과 정책, 특히 환경정책, 경관, 자연, 보호지역, 수리 위험지역, 그리고 해안지역관리 방안과도 충돌이 없도록 조정되었다.

□ 지자체 도시계획의 경관규칙 조성을 위한 방향

- 경관의 표현, 이에 따른 <계획>의 조닝에는 지역건축 생태계 진화의 패러다임이 도입되었고,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조되었다. <계획>의 각 지역지구¹¹⁾는, 지역공동체와 자연 간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생태계들이라고 볼 수 있다.
- Cinque Terre 공원지역은 다양한 기능 단위로 규정된 여러 생태시스템, 환경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분되었고, 이렇게 구분된 지역지구는 형태적으로 PTCP¹²⁾에서 제시된 일부 지역 성격들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각 계획 간의 다층관계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위계의 효과와 실행을 가지는 <계획>이 구성되었다.
- <계획>의 주된 특징은,
 - 지역조직은 전반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Cinque Terre 국립공원의 지역과 일치한다(Cinque Terre의 환경 부분 environmental unit)
 - 기본 지역조직은 상당 부분의 항만지역, 또는 물리적으로 항만지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일치한다(항만경관 및 생태계의 유기적 부분 organic unit)
 - 건축부분은 전반적으로 계단식 농경시스템의 지역생태계와 일치한다(지역 건축 생태계의 기본 지역 시스템)
 - 항만 생태계 내의 자연환경은 자연과정이 추가되어 나타나는 지역과 일치한다.

□ 보호지역계획 조성을 위한 리구리아 주 방향

- 리구리아 주는 2001년에 주 내의 공원 활동을 조율하고 공원계획들의 조성을 위한 방향을 담은 "공원계획을 위한 리구리아 주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공원이 지역 안에서 '수동적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부분과 새로운 부분의 인지, 개발, 그리고 발전을 포함하면서 지역민의 이익을 위한 잠재력의 발견 및 방향설정의 도구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좋은 환경의

11) A 지역 - 총체적 보존; B 지역 - 전반적 보존 유도 지역; C 지역 - 보호 지역; D 지역 - 경제 사회 발전 추진 지역

12) Piano Territoriale di Coordinamento Paesistico (Territorial Plan of Landscape Coordination) 주 안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 안의 경관의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작성되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역법.

- 가치 확립, 조정, 그리고 경제적 활용을 이루는 역할 담당도 하고자 한다.
- 지침으로부터 Cinque Terre의 현실을 위해 더 의미 있는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피해야 할 것은,
 - 계획의 수립과 관리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닝
 - 현재 실효중인 산림법과 버섯 채취와 관련된 법의 강화
 - 타 지역계획과 불필요한 중복
 - PTCP의 제약 규정의 추가 강화를 피한다.
 - 반면, 더 추진되어야 할 것은,
 - 지역 활용 주제의 심화 및 산림자원의 향상
 - 산림과 그 경제적 활용의 재발견을 위한 실험적이고, 교육적인 시도
 - 계획 내용, 조닝에 있어 좀 더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지자체간의 심층적 의견 공유
 - 환경 재정비의 목적에 맞고 더 구체적인 계획
 - 경관의 질적 향상, 지역전통경제의 보호, 지역 활용을 위한 서비스 구축
 - 환경 네트워크 NATURA2000에 적극 참여
 - 지역, 환경, 그리고 경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과거에 기 진행 된 각종 연구과제를 반영하기 등이다.

2) Cinque Terre 국립공원 계획 (Piano del Parco)

(1) 목적

□ 만들어진 경관 built landscape의 보존

- Cinque Terre 국립공원에서는, 인공 구조물들의 확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규칙들과 더불어 자연 역학관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규칙들이 기존 경관들과 엮인다. 경관의 이미지들은 인간이 만들어온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래 자연의 모습에 덧씌워져 있다.
- <계획>에서는 '진화하는 문화경관 evolutionary cultural landscape'의 뛰어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건식 벽 구조로 지탱되는 계단식 농경시스템의 구축을 비롯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로서 자연형태를 뿌리 깊게 바꾸어 놓았다. Cinque Terre는 '인공구조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예이며, 또, 그 '진화하는 문화경관'은 '사는 공원 lived park¹³⁾'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 이러한 이유로 <계획>에서 우선시되는 목적은 계단식 농경경관의 보존을 보장할

13) 지나치거나 들르는 공원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공원. 공원 안에 주거지, 생활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 보존 계획 뿐 아니라 built environment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는 총괄적인 경관 계획 (도시 경관 계획)을 갖게 된다.

수 있는 지역관리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계획하기

- <계획>은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농업, 특히 포도재배를 중요시하는데, 포도재배의 유지는 결과적으로 복합기능의 농업 도입, 농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역관광산업의 서비스와 구조와 연결된 새로운 잠재력 발굴에 달려있다고 본다.
- <계획>은 단지 보존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 조정계획의 관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계획>의 여러 시스템들은, 건축물을 복원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건축물의 부동산 부가가치가 환경적으로 환원되도록 유도한다. 즉, 복원작업의 허가는 건물주가 주변 경관의 건식벽과 농경양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금을 제공할 때만 주어진다.
- 이러한 방식으로 예부터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오던 지역경관 관리가 제도적인 형태로 재도입된다. 이는 또한 단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과 지역 관리, 집과 환경, 지역유산 관리에 임하는 각자의 지역공동체 내 책임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각자의 책임감은 각 지역민의 정체성이 그 지역과 지역공동체 안의 소속감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질 때 얻어지게 된다.

□ 자연의 역학관계 보호

- Cinque Terre 국립공원은 비교적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비교적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공원 안 원래 자연환경의 여러 모습을 뿌리 깊게 바꾸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연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인공적 정착 과정이 나타난다. 즉, 순수 자연과 그 역학관계에만 해당되는 규칙들은 Cinque Terre 국립공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 <계획>은 계단식 농경경관의 보존을 그 우선 목표로 하면서, 계단식 농업경관 복원 프로젝트의 가능성 타진뿐 아니라 자연역학관계가 우세하는 지역 발견을 진단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 계단식 농경 경관의 이해를 가져온 <계획> 내 GIS 시스템 구축은 계단식 농경이 나타나는 다양한 경우 분석,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 그리고 재자연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계획>은 또, 재자연화 대상지역 중 비교적 수월하게 자연의 과정과 인간 정착의 과정이 균형있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한다.
- 즉 <계획>은, 인간의 흔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지역 안의 기 자연 역학관계를 보호하고, 더 이상 유지하기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계단식 농경 지역의 재자연화 과정을 유도한다.

(2) 전략적 목표

여러 문서에게 표현되고 있는 계단식 농경 경관 보존이라는 <계획>의 최종목적은

그 중요 선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축으로 여겨져 왔다.

이 목적은 다음의 사항들과 연결된다.

- 지역생태계(계단식 농경 경관 지역)의 유지와 복원
- 수문지질적 hycrogeologic 위험 예방과 안전 대책
- 농업과 관광업의 복합적 경제 발전
- 경관보존과 보호에 임하는 지역공동체와 지역민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지역생태계(계단식 농경 경관 지역)의 유지와 복원

- 이는 특히 포도주용 포도 농사와 관련된다. 그 유지와 복원은 개인 단위로서 농작지 소유주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각 개인이나 기관들이 공원 기구에 이를 위임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될 수도 있다. <계획>은 이 두가지 경우를 모두 다룬다.
-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환경으로의 환원' 작업으로 나타나는데, 복원 및 수리로 인해 발생한 각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 중 일부를 주변의 건식벽이나 농경경관 전반적인 상황을 향상시키는 작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 공원기구에 위임되는 경우 공원기구는 기금운영을 통하여 계단식 농경경관 복원뿐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기간시설 확충 작업도 하게 된다.

□ 수문지질적(hycrogeologic) 위험 예방과 안전 대책

- 계단식 농업 형태의 점차적인 축소는 수목식생의 발달에 따른 빠른 대지안정, 또는 점차적인 건식벽의 붕괴에 따른 수문지질적 위험의 형태로 나타난다. 안전 대책이 강구되는 경우는 붕괴에 따른 위험이 거주지 지역, 기간시설 지역과 일치되는 경우이다. 특히 이 경우 예방을 위한 계획들은 계단식 농경 경관 보존을 위한 계획들과 일치한다.

□ 농업과 관광업의 복합적 경제 발전

- 이는 복합기능의 농업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농경활동과 관광, 식품 관련 경제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 <계획>은 농업과 관광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간시설을 다룬다. 더 불어 해안 지역에서의 관광객 집중 유입을 줄이고 이를 산(절벽 언덕) 위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지침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산 위에 위치하는 수도원으로의 길을 개발하고, 농업과 관광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농업관광(Agritourism) 등으로의 개발 유도가 그것이다.
- 농업관광 개발 유도를 통해 쇠락하고 있던 지역건축물과 전통농업의 복원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환경으로의 환원'과 계단식 농업경관 보존을 유도하며, 이 같은 지역 특유의 환경회복을 바탕으로 관광업의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경관 보존과 보호에 임하는 지역공동체와 지역민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산업시대 전 지역공동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자원, 농경자원의 재생산과 함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며 전체적인 지역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 <계획>은 오늘날 더 이상 적용시킬 수 없는 과거의 시스템을 재도입하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환경과 경관구조를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적, 사회인문학적 시스템에 맞는 진보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계획>이 지향하는 시스템적인 새로운 방법은 닫힌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해서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외부와의 관계에 열려있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행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같은 <계획>이 재편된 지역 경제의 경제적 편의성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재발견의 이점을 보장할 수 있다.

(3) 사회적 목표

- 경관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전략 목표에 따른 <계획>의 형성과정에는 Cinque Terre 지역과 그 지역공동체를 연결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도 함께 따른다. 사회적 목표는 <계획>과 그 안의 전략목표 수행에 필요한 과정들을 수행하는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도 수반한다.
- <계획>의 구조와 형식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계획을 통해 지자체들의 도시계획과 상위 행정기관의 지역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한다.
 -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계획으로서 Cinque Terre 국립공원 현실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제한이 아닌 적극적인 실행의 수단이 되게 한다.
 - 지역에 관한 지식을 위한 계획으로서 계단식 농업경관의 생태 환경, 역사문화적 가치의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를 폭 넓게 퍼뜨릴 수 있게 한다.

□ 관련기관들의 협력계획

- <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조율하고 포괄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이 현안을 복잡하게하기보다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현재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각종 법규를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이다.
- 근래에 들어 공원과 관련된 규제와 계획들의 수는 증가되었고 같은 지역에 대해 다른 성향의 지침들이 중복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일관되지도 않다. 관련 법률들 중 각 지자체의 PRG¹⁴⁾, PUC¹⁵⁾를 비롯하여 PTCP¹⁶⁾, 해안지역 계획 및 분야

14) Piano Regolatore Generale 기본 계획

별 계획들이 실효 중에 있으며, 광역 PTC¹⁷⁾, 항만 계획이 조성되고 있고, Cinque Terre 국립공원의 많은 지역이 SIC¹⁸⁾ 보호지역 안에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적으로 혼란과 이해의 충돌을 가져오고 있으며 <계획> 또한 추가적인 혼란요소로 작용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자 공원의 보호지역에 관한 법체계는 <계획>이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을 내포하면서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모든 도시 및 경관 계획을 대체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 <계획>이 실효 중인 모든 조닝과 법규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규들의 성격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실제 필요에 다가가고 지역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계획>은 이어서 지역의 중요 동력, 발전 및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문제들을 고려하였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전을 가지는 해결책들을 조율하였고, 그리고 지자체들을 동시에 아우르는 하나의 틀을 만들게 되었다.

□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계획

- <계획>이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지역개발의 제약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경제문화적 발전을 가져오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은 지역민을 지역보존에 참여시키고,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 <계획>의 준비과정 중에 더 급박한 문제를 규명하고, <계획>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알아내고, <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약 30여회의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단체 및 지역민과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요구사항을 이해하도록 했다.
- 실행가능한 해결책들은 직접 이해관계당사자인 지역민 대표와 지자체 간 대화의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지역 내 거주 10년 이상인 지역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이나 해안 중심지의 보행자 전용 도로화와 이를 위한 환승 주차장 건설 등이 그 예이다.
- 농경지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 대책들과 같이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될 사항으로서 정리되었다.

15) Piano Urbanistico Comunale 도시 계획

16) Piano Territoriale di Coordinamento Paesistico (Territorial Plan of Landscape Coordination) 주 안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 안의 경관의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작성되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역법.

17) Piano Territoriale di Coordinamento (Territorial Plan of Coordination)

18) Siti Importanza Comunitaria 지역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부지들

□ 지역에 관한 지식을 위한 계획

- 지역지식의 형성은 <계획> 조성과정의 중요한 단계였다. 적절하게 형성되고 소통된 지역지식은 <계획>의 목적을 공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단식 농경 경관의 보존이 지역민의 문화와 사회 발전과 결부되어 있다'는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 지역지식의 형성을 위해 다음의 작업들이 수행되었다.
 - 기 수행된 각종 연구들을 분류하고 재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Cinque Terre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첫 단계 마련하기
 - 지역지식의 부족한 부분 채우기
 - 지역지식을 보완, 보급이 쉬운 형태로 재정비하기.
- <계획>을 위한 선택을 돕기 위해 형성된 지역 지식들은 전략적 성격을 띠며, 계단식 농경 경관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 축적에서부터 일관되게 시작되어 <계획>에 필요한 추가정보 등을 차근차근 모아가며 준비되었다.
- 이 같은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계측이나 재정리를 통해 얻어진 환경적, 경관적 지역 지식이 Cinque Terre 국립공원의 GIS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GIS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지역지식들을 계단식 농경 경관지역을 보존이나 재자연화 방향으로 구분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나 <계획>의 조닝을 확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었다.
- 지역지식은 또한 Cinque Terre 지역의 환경, 자연, 문화적 가치를 인지함으로써 공원 내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4) <계획>의 기준과 방법론

- <계획>은 지역보호와 관리를 위해 '계획', '규칙', 그리고 '경제 사회 다년간 계획'의 세 가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은 지역을 환경적 가치와 필요한 보호 정도에 따라 분류된 지역지구에 따라 재편집한다. '규칙'은 공원 내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대하는 지역 거주민과 방문자들의 행동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경제 사회 다년간 계획'은 경제지원 상황에 근거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어느 대책부터 실행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된다.
- '계획'은 다시 그 효과나 처리가능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뉜다.
 - 1등급 : 전략계획
 - 2등급 : 보호계획
 - 3등급 : 관리 및 기획 계획

□ 전략계획

- '전략계획'은 직접적인 실행이 아니라 공원 안의 다양한 환경시스템을 위한 목적, 전략 및 정책의 표현하는 방향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계획들이 진행된다.

□ 보호계획

- '보호계획'은 실행규칙을 포함하며 대지사용 용도에 관한 계획이다. 이 안에서 공원지역은 과거 계획들보다 더 자세하게 분류된 지역지구로 재편되어 Cinque Terre의 경관보호, 보존 및 농업과 식생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 A 지역 - 총괄적 보존 - 인공환경에 비해 자연환경이 월등히 우세한 환경시스템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공원의 확장이 제한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비교적 자연이 주가 되는 부분도 인적에 의해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존을 기본으로 하며, 계획을 위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B 지역 - 전반적 보존 유도 지역 - 인공환경에 비해 자연환경이 주가 되는 환경시스템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대부분 산등성이나 언덕의 산림지역이거나 절벽으로 된 해안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선 등이다. 전략상 자연환경시스템으로 분류된다.
- C 지역 - 보호 지역 -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이 섞여 나타나는 지역이다. 계단식 농경 경관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전략상 인공환경시스템으로 분류된다.
- D 지역 - 경제 사회 발전 추진 지역 - 인공환경이 월등히 우세한 지역이다. 인공 구조물들이 집중되어 정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략상 주거중심지와 해변, 언덕에 조성된 주거지의 '도시' 환경시스템으로 분류된다.

□ 관리 및 기획 계획

- '관리 및 기획 계획'은 '경관환경의 재조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규칙들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관리의 기준과 방법을 다루는 법규로서 프로젝트 적용 지역, 형식, 우선순위,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주체들을 규정한다.

(5) 경관계획의 시사점

<계획> 수립과정에서 드러난 시사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개개인과 그들의 지역공동체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경관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 역할은 <계획>의 구조 안에서 그 의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 지식의 표상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역지식들은 실제적인 활용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경관이나 과정의 단순한 묘사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공동의 인식과 지식의 연속성 안에서, 지역 지식은 종합적 기획 의도에 따른 <계획>의 방향 조정을 위해 선택적인 선행 작업을 필요로 한다. 즉, 모든 정보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중심 주제를 우선시하게 되며 이 같은 중심 주제는 <계획>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진다.

- 〈계획〉의 조닝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지역지구를 결정짓는 기준들은 단순히 과학적, 기능적 분류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 지역공동체가 갖는 이상의 의미나 그에 관련된 움직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조닝이 되는 경우 보존 정책의 수행을 위한 행동 규범들의 적용이 더 쉬워질 수 있다.
- 실행 대책과 그 관리와 연관 지어 생각할 때 〈계획〉의 조닝을 위해서는 거대 공간 위주보다는 중소 규모의 공간 위주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중소 크기의 공간은 사실 각 개체의 실행 대책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고, 지역민의 일상 생활이 벌어지는 규모이기도 하며, 각 개인사와 지역공동체 역사를 위해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 이어서 중소규모의 공간이 보다 큰 단위의 공간구조 안에서 개발되고 총괄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큰 단위의 공간구조는 중소규모의 조닝 조각들을 모자이크처럼 지역정체성의 틀 안에 정리하게 되고, 동시에 보다 큰 단위의 공간구조 또한 모아지고 공유된 정체성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 지역성의 가치, 즉, 경관의 특이성을 소중하게 여긴다. 〈계획〉은 그 구조 안에서 지역의 독특한 성격과 자원을 강조해야하고, 모든 상황의 평준화를 유도하는 과정들을 지양해야하고, 주변환경의 어려움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하며, 그리고 자발적 움직임으로 귀결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환작용을 촉진해야한다.
-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개개인, 지역공동체, 여러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은 많은 변화요인에 따라 바뀌며, 그 변화요인들은 동시에 관리가 불가능할 수도, 각기 다른 시점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계획〉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를 변화시켜 능동적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 물리적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조의 생산에도 기반을 둔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 창조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사회, 경험 등은 모두 〈계획〉의 실행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의 창출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공동 사회문화자산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다.
- 경관은 공동의 부동자산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경관요소들은 각 지역과 배경의 개별성을 규정짓는다. 이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다른 곳에서 얻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경관의 유지관리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로서 개개인이 그 보호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인식 및 의지에 달려있으며, 〈계획〉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경관의 보존을 얻어낼 수 없다.

- 〈계획〉의 실행방향을 결정짓는 전략 시나리오로서 미래에 관한 궁극적인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계획〉의 궁극적 목적과 그 과정에 초점을 둔 전략 시나리오는 지역민들의 공통 가치의 공유를 유도해갈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3) Local Agenda 21 – Vernazza

(1) 지역 개요

- Vernazza는 Cinque Terre 국립공원 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 약 12km²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세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총 인구는 1,000여명으로, 세 마을 중 관청이 위치한 Vernazza에 600여명, Corniglia에 350여명, 그리고 San Bernardino에 50여명이 살고 있다. 지역민의 주 교통수단은 Genova-La Spezia 철도로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관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다.
- Cinque Terre, 특히 Vernazza에 집중되는 관광산업은 바다에 면한 좁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경관에 기인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여행을 독특하게 하는 것들은 기념비, 교회, 수도원, 성, 마을 등이기 보다 지역 경관의 형태, 주거 형태, 그리고 포도밭이나 올리브 경작지가 있는 절벽면의 농경경관 간의 완벽한 조화와 상호 작용이다. 이 같은 인공의 시스템은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거의 훼손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2) Local Agenda 21

- 현재 Vernazza 지자체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은 다음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 지역민의 감소.
 - 그 지역경관의 특이성으로 인해 꾸준한 유지관리를 필요로 한다.
 - 특히 봄과 여름에 집중되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
- Vernazza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동역은 관광산업이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은 그 자체가 갖는 자연, 경관, 예술적 가치 사이에 조성된 밀접한 시스템이다. 한 예는 바다에 면한 절벽에 조성된 포도밭으로 이는 자연경관인 동시에 수세기 동안 쌓여 온 지역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공경관은 농경활동에서 발생되는 단순한 부산물만이 아니라 Vernazza의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주된 요소이다. 때문에 그 자연 경관의 보호와 향상은 시장 원리에 따라 관광산업 자체에 주어지는 과제여야 할 것이다. 즉, 경관을 조성하는 쪽은 그 경관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쪽에 의해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이란 그 양적 질적 가치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란 명제에 입각해 볼 때, 지역민 뿐 아니라 관광객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단기간, 장기간 동안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또 통합적,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발달은 지역민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Vernazza도 그 자체만의 특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해안선상에 놓여있다는 특성상 다른 Cinque Terre 지역들,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Riviera Spezzina 스페시아 연안"과, 더 나아가 Cinque Terre 국립공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공동운명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경관의 보호 유지, 관광산업의 발달을 위해 지자체 경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침이나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Vernazza가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안에만 존재하는 박물관으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경관의 보호유지를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체인 지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Vernazza 의회는, 리구리아 주 의회의 9/9/99, no.98 조례에 의거하고 리구리아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Local Agenda 21 실행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 Vernazza의 Local Agenda 21가 표방하는 주 계획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직 안에서의 조치
 - 지역 내 조직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 유럽연합의 EMAS¹⁹⁾, 또는 ISO14000에 준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 실행
 - 지역 내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계획, 정책, 활동에 지속가능성의 개념 도입
 - ②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조치
 - 현안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교육
 - Agenda 21에 입각하여 지역관리자들에게 환경 관리 시스템과 관련 유럽 연합 지원에 대한 교육과정 도입
 - Agenda 21 프로그램 소개자료 준비
 - 지역민, 관광객과 상담하고 참여시키기
 - 'Local Agenda 21 포럼'을 조직하여, 지역 내 사회경제 이해당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 마련하기. 또한 지역민과의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 '관광사무소'를 설치하여, 환경이슈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예약업무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며, 'Working Holiday' 서비스를 관리한다.

③ 파트너십을 위한 조치

19)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 기업이나 조직들이 그들의 환경 활동을 평가, 보고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관리 기준

- Cinque Terre 지역 내 다른 지자체와의 연동을 통해 Agenda 21의 도입을 유도하고, Cinque Terre 유럽 사무소를 설립하여 유럽 연합 프로젝트 계획, 설립, 그리고 보고를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의 창구로 삼기.
- 약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지중해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아이디어와 경험 교환의 창구로 삼기
- 지역의 지속 가능 전략, 그리고/또는 수행 계획 설립
- 지역의 조사, 관찰, 보고, 그리고 감사 수행
- 환경요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간보고서 준비

(3) Local Agenda 21 포럼

- 90년대에 들어서 Vernazza 지자체 정부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Local Agenda 21의 과정을 도입하여 진행하였다. Local Agenda 21의 첫 단계에는 지역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과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Local Agenda 21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공개 모임이 진행되었고, 지속 가능성의 지침을 포함하는 'Vernazza의 환경 현황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가 준비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청회들을 통해 소개되어 토론과 의견 제시의 주제로 활용되었다.
- 이와 같은 시도 덕분에 지역민에게 Local Agenda 21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포럼은 2001년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Vernazza 2010: 지역공동체 미래의 공동 비전을 위해'²⁰⁾와 함께 진행되었다.
- 워크숍은 포럼의 참가자들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루어내고자 실질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구체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면서 '지역공동체 미래의 공동 비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 자세한 목적, 실행 주체, 그리고 실현방법을 얻어내기 위한 기본지침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실천계획 가이드라인

□ EASW(European Awareness Scenario Workshop)

- 유럽 연합의 EASW는 토론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참여유도 도구이며, 특히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이다. 초기에는 환경분야에서 시도되었었는데 특히 도시환경의 전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도되었다. EASW는 또, 경관을 자원의 효과적 이용에 근거하고 공유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진일보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참가자들은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키고,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지하는 방해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20) EASW - European Awareness Scenario Workshop

제안하게 된다. EASW는 기술적인 면과 사회구조적인 면들이 지역발전 모델을 미래의 필요성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EASW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으로서 지역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주제들을 마주하게 하고자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유도하는 진행방식을 가진다. 워크숍 안에서 참가자들은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전문가'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변화의 기회나 그 한계를 알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 EASW에는 평균 3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활동분야를 대표해야하고, 보통 네 가지의 다양한 사회 그룹 - 이해 그룹 안에서 선택된다. 그 네 가지 그룹은 시민, 기술 전문가, 공무원, 민간 분야 대표 등이다.
- EASW는 비전 발전,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두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된다.

□ 포럼의 프로그램

- 포럼은 2001년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5월 19일 토요일 : 비전 발전
 - 현안과, 가능한 지역 실천 계획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이해 그룹에 따라 나뉘어져 각각 2010년 Vernazza의 포괄적인 미래상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게 된다. 네 그룹의 미래 시나리오는 이어지는 전체 모임을 통해 보여지고 이들 중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 전체적으로 공유된 비전의 요소들을 만들어가게 된다.
- 5월 20일 일요일 : 아이디어 제안
 - 참가자들은 주제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 재구성되어 아이디어의 내용과 실행방법을 구체화시켜가면서 앞서 공유된 비전의 목적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안들을 발전시켜가게 된다. 이어지는 전체 모임에서 소개된 그룹의 아이디어들은 본 포럼의 지역실천계획 최종제안을 선별하기 위해 투표의 과정을 거쳤다.

□ 포럼 토론의 주제

- 토론 주제들은 'Vernazza의 환경현황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드러난 주요 원칙에 기반을 두고 도출되어 세 개의 마크로 주제로 정리되었다.
 - 도시환경 : 삶의 질, 사회 서비스의 질
 - 지역적 가치 : 농업과 경관
 - 환경자원 : 에너지, 쓰레기, 물

□ Vernaza 2010의 공유된 공동의 비전

- 워크숍 첫 날의 결과물로서 공동의 비전이 지역민의 승인을 위한 마니페스토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Vernazza는 살아있고 살만한 지역이다. 우리는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왔고, 수공업, 농업, 상업, 관광산업 등의 모든 생산 활동을 총 경제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시켜왔다.

관광객 유입의 조절은 Vernazza의 문화와 경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부각시킬 수 있게 하는 양질의 관광산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UNESCO의 인증과 함께 관광산업은 연중 고르게 나타난다.

Cinque Terre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관리 조직이 만들어져 관광산업,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관리 조직의 우선 과제는 고급의 Cinque Terre 브랜드로 인증되어 소개될 지역 상품 군을 구성하는 것이다.

교통과 이동 수단은 La Spezia와의 경철도 시스템으로 특징지어지고, 이 시스템은 노년층의 격리를 최소화 하면서 각종 사회, 지원, 의료 서비스에의 원활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Vernazza의 경관을 특징짓는 계단식 전통 농경 시스템의 재발견으로 경작면적이 늘어난다. 고지대에서는 생산 활동을 수월하게 하는 기계 시스템이 농경지 간 도로를 촉진시키며 활용된다.

쓰레기 및 화학비료 사용 축소

도심에의 관광객 유입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관광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횡적, 종적 산림로들이 회복되었다. 도시 환경은 지역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건축적으로, 색조 면에서, 그리고 재료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리되어 회복되었다.

지역 거주민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을 줄인다. Vernazza를 위한 시도와 프로젝트들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정부와 상인, 주민 간의 시너지를 상호 지원을 통해 포괄적으로 만들어 간다. 전 수도원 단지는 전통과 지역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문화 컨벤션 센터로 전용되었다.

□ 지역실천계획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 워크숍 두 번째 날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토론과 최종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점은 관광산업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한 공동의 인식으로, 그 하나는 관광산업이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주목할 만한 충격을 가져오는 주요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실천 계획	득표수	투표인 구성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통해 지자체 정부가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고소득 작물이지만 환경영향이 적은 포도 재배용 지역을 구분하였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지역 경제의 중요 생산품인 '경관'을 제공하는 농경 업체의 진흥 촉진을 통해 환경의 재조명과 보존을 도모한다.	7	공무원 1 기술 전문가 4 사회 기관 2
관광산업 = UNESCO 인증 관광객 유입 조절 APT Cinque Terre – 공원 – 리구리아 주 – ENIT 간의 동의를 통한 홍보/정보/예약 센터 설립	7	공무원 3 기술 전문가 2 사회 기관 2
Levato – La Spezia 간 철도를 지하철로 변형하기	7	공무원 3 기술 전문가 2 사회 기관 2
관광산업의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한 환경 기금 조성	5	공무원 2 기술 전문가 2 사회 기관 1
쓰레기, 물, 가스 관리 정비	4	공무원 0 기술 전문가 0 사회 기관 4
의료 및 사회 지원 제도 강화	4	공무원 0 기술 전문가 2 사회 기관 2
자연 비료, 채소 수집, 분리수거에 관한, 전기 절약에 관한 홍보와 관심 촉진	3	공무원 1 기술 전문가 1 사회 기관 1
항구 지역에 모터 보트의 진입 금지. 속도와 마력 제한 항로 계획과 전체 항로 수 제한	3	공무원 1 기술 전문가 1 사회 기관 1
거대 폐기물을 위한 임시 수집장 마련	1	공무원 1 기술 전문가 1 사회 기관 0

□ 결론

- 많은 표를 얻은 제안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경관의 유지, 농업의 재조명, 관광산업 관리, 사회서비스 확충과 같은 제안들이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이나 지역가치에 관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지역의 현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이해관계 그룹에 따라 더 관심을 보이는 제안들도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이를 통해 각 그룹이 가지는 동기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